朝鮮日報
夕刊
一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革新分子를助長하야 既成政黨分解企圖?

懲罰的意味로議會解散코 政府、新黨樹立自信

【東京電話同盟】政府는 最近 衆議院의 態度가 極히 誠意를 缺하고 特히 審議를 遷延시키는 態度를 取하고 잇스므로 懲罰的 意味에서 解散을 斷行하고 是非를 國民의 公正한 批判에 기달린다는 態度를 取하엿스나 四月三十日에 行하는 總選擧에 際하야 政府가 何等 與黨도 갓지 못하고 如斯한 突發的 解散을 斷行한 것은 從來의 常識的 憲政論으로서는 到底히 首肯할 수 업다 이에 依하야 政黨을 기피 刺戟하고 今後 相當한 反政府熱을 煽動함이 豫想됨에 不拘하고 政府가 如斯한 勇敢한 態度를 取한 것은 新黨運動에 對한 政府의 기픈 信念과 自信을 말하는 것이라고 注目된다 即 政府는 今回 解散의 意義가 政黨에 對하야 單純한 反省을 要望함에 끄치지 안코 더욱 一步를 進하야 自然히 政黨의 出現을 期待한다는 積極的 意圖를 包藏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意味에서 來總選擧에 際하야는

一、立憲政治의 健全한 發達
一、政黨의 自覺

을 골자로 林首相 以下 各閣僚는 모든 機會에 이를 披瀝 國民에 呼訴하야 今回 解散한 特殊意義를 闡明하게 되엿다 그러나 政府로서는 只今 即時 新黨을 樹立코저 하는 意圖가 아니오 萬若 政黨이 眞實로 自覺한다면 구태여 如何한 黨派임을 不問하고 어데까지던지 議會의 廓正을 期한다는 主見을 取하고 잇스며 一方 政黨에도 黨內的 動搖의 時期에 直面하야 今回의 解散을 契機로서 革新的 機運에 合流코저 하는 分子는 相當히 活潑한 運動을 開始하야 既成政黨은 分裂의 危機에 逢着할 可能性도 充分히 잇스므로 政府는 暫時 事態의 推移를 靜觀한 後 如斯한 革新的 空氣를 誘導하야 新黨樹立에 誘導코저 하는 模樣이다 即 政府는 相當한 自信을 가지고 政黨側에 革新運動의 發展을 期待하고 假令 新黨運動이 判然히 具體化되지 안터라도 政黨政派에 새러온 動向의 生長에 依하야 來特別議會를 通過한다는 確信을 抱懷하고 잇다 如何던지 今回의 解散이 新黨運動의 將來에 大波紋을 던진 것은 疑心할 바 업서 今後 一個月間의 政界의 動向을 注目할 바 잇다

林首相

內閣運命長短은

政黨分野變化如何에

【東京電話同盟】第七十議會 會期 中 突然 捲起된 解散의 暴風과 함께 民政, 政友 兩大政黨을 비롯하야 昭和, 社大, 國同, 東方 其他 會派 等은 一切 總選擧의 混亂에 落하고 마럿다 即 第二十回 總選擧 期日은 法規가 定한 바에 依하야 來四月三十日로 決定하고 一日附로써 選擧期日의 公布와 選擧法 第百二條 第二項 規定에 基한 選擧運動費用의 法定制限額을 告示하는 同時에 各立候補者는 立候補屆出을 行하고 即時 選擧運動의 實戰에 들어가게 되엿는데 今次 總選擧의 特異한 點은 既成政黨에 何等 基礎를 못가진 林內閣이 今議會의 重壓下에서 政民 兩黨의 態度가 時局에 對한 認識을 缺한 것이라고 是非를 天下에 問하고저 한 것이다 今回 總選擧야말로 林內閣이 勝을 制할가 政黨이 勝을 得할가를 國民의 批判下에 기달리게 된 것이다 政府側은 既成政黨의 分解作用 又는 革新的 政黨의 實現을 衷心으로 期待하고 既定方針에 則하야 廓正選擧法에 依하야 相當히 嚴重한 選擧取締를 行하고저 함에 對하야 政黨側은 今回 解散은 理由업는 暴擧이라고 하야 反政府形勢는 選擧의 進展에 따라 더욱 高揚할 것이라고 推測되며 政府側이 期待하는 바와 가튼 分解作用을 이르킬 수 업고 新黨實現은 아직 遼遠하다는 觀測이 行하고 잇는데 果然 林內閣이 總選擧의 結果를 기달리여 特別議會를 열게까지 될지 全然 豫斷을 不許하는 바이다 따라서 既成政黨의 分野에 變化가 업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時局安定은 바랄 수 업는 狀態이여서 政府對政黨의 自然的 政戰은 바야흐로 全國的으로 展開되게 되엿다

國有財産法取扱規定

多年懸案으로 되여 잇든 朝鮮의 國有財産法은 마침내 今一日부터 實施하게 되엿는데 그 施行規則 및 이에 附隨한 國有財産取扱規定은 各各 總督府官報號外로써 公布되엿다

記念植樹

參加者三千豫想

恒例에 依한 總督府及 京畿道 主催 第二十七回 記念植樹는 四月三日 神武天皇祭當日 午前十一時부터 東小門外 貞陵里 李王職所管林野內에서 擧行키로 되엿는데 當日은 南總督閣下를 爲始하여 總督府 各局長及 久納軍參謀長 外 官民 有力者 合하여 三千餘名에 達할 模樣이다 그리고 當日 植栽될 樹種은 西伯利亞 落葉松 八千本 松 四千本, 樅 四百本, 栗 各 百本 合計 一萬二千六百本을 十二時頃 植栽를 마치고 午餐 終了 後 散會할 豫定이다 그런데 當日 受付는 午前九時半부터 開始할터인데 場所는 陵을 中心으로 赤松이 相當히 繁茂하여잇고 林內에는 二個所의 藥水가 湧出하야 때가 新春임으로 散策氣分을 滿喫하기에 好適의 時期임으로 京電에서도 當日의 混雜을 豫想하고 東小門, 敦岩町間에 大型뻐쓰 十五臺를 增配하고 또 主催者側에서는 各要所에 案內者를 配하여 參加者의 便을 圖할터이라 한다

成立法案

全部二十五件

【東京電話同盟】第七十議會에서 協贊을 經由한 法律은 左의 二十五件이다

一、救護法中改正法律
一、母子保護法
一、軍事救護法中改正法律
一、漁船保險法
一、漁船再保險特別會計法
一、北海道舊土人保護法改正法律
一、輸出補償法中改正法律
一、森林火災國營保險法
一、森林火災保險特別會計法
一、地方鐵道補助法中改正法律
一、臨時租稅增徵法
一、法人資本稅法
一、外貨債特別稅法
一、揮發油稅法
一、有價證券移轉稅法
一、昭和十二年度一般會計財源에 充當하기 爲하야 公債發行에 關한 法律
一、一般會計歲出의 財源에 充當하기 爲하야 特別會計로부터 一般會計 繰入金에 關한 法律
一、一般會計歲出의 財源에 充當하기 爲하야 大藏省預金部特別會計의 積立金에 關한 法律
一、昭和七年法律第一號中改正法律
一、對中文化事業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
一、東京農業教育專門學校創設에 伴하는 帝國大學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
一、中學校及圖書館特別會計法에 關한 法律
一、朝鮮鐵道用品資金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
一、朝鮮事業公債法中改正法律
一、絲價安定施設法案
一、絲價安定施設特別會計法

欠員三閣僚를

政府、選擧前에補充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三十一日 議會를 解散하고 現內閣의 中立的 立場에서 總選擧를 行하게 되엿는데 閣僚補充에 對하야는 林首相은 過般來 具體的 人選에 關하야 愼重考慮中이던바 可及的 選擧前으로 適當한 時期에 文部, 鐵道, 拓務의 三相 人選을 同時에 決定할 意向이라 한다

各派別立候補數

【東京電話同盟】一日 午後一時 現在 立候補者 黨派別은 如左하다

民政	一八
政友	六
社大	三
諸派	一
中立	三
合計	三一

日本不參加로

米備砲口徑愼重硏究

【華盛頓三十一日發同盟】米國政府는 來八月 三萬五千噸級 主力艦 위싱톤號及 노-드카롤라이나號 二隻의 入札建造에 着手하는데 日本政府의 備砲口徑制限條項拒否를 契機로 米國海軍省首腦部間에는 十四吋砲와 十六吋砲의 選擇에 잇서서 愼重히 硏究하고 잇다 重量關係로 말하면 十四吋砲 十二門과 十六吋砲 九門과 거이 同量인데 攻防 兩方을 比較檢討한 後 아직 最後的 決定에 이르지는 못하엿다 艦上現役將校의 大部分은 砲彈攻擊性能의 立場에서 十六吋砲를 贊成하나 他方 十四吋砲 十二門은 十六吋砲 九門과 結局 同量의 砲彈發射性能을 發揮할 수 잇다는 議論도 잇서서 十六吋砲는 只今은 問題되지 안는다

地方長官會議

首相訓示要旨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一日 閣議에서 來五日 首相官邸에 열리는 地方長官會議에서 行할 林首相의 訓示에 對하야 協議한 結果 左의 三點을 骨子로 政府의 意한 바를 强調하기로 決定하엿다

一、今回 解散의 理由를 闡明하고 眞實로 政府의 意잇는 바를 國民에 徹底시키도록 努力시킬 것
一、選擧取締에 對하야는 어데까지던지 廓正選擧의 實을 期하는 同時에 今議會에서 人權蹂躪에 對한 非難의 聲이 노펏던 事實에 鑑하야 當局者로서 反省할 必要가 잇슴
一、選擧에 對한 政府의 態度는 「立憲政治의 健全한 發達과 政黨의 自覺促進」을 標榜하고 私黨을 滅하고 公에 殉하는 精神으로서 一黨一派에 偏치 안흘 것

新稅法施行規則公布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今議會를 通過한 臨時租稅法案外 四新稅法案을 四月一日부터 實施할 것이 一日附官報로 그 施行規則을 公布하엿다

民政黨의第一聲!

議會는最善의努力 解散理由不可解

短期間會期에八十餘件法案提出은無理 閣僚兼攝이만코政務官連絡不足이原因

議事阻害란萬不當!

【東京電話同盟】民政黨은 三十一日夜 來總選擧에 際하야 必勝을 期하고저 左의 所信을 明確히 하엿다.

議會는 突然解散되엿는데 우리는 政府의 解散奏請理由를 諒解할 수 업다 우리는 國民大衆의 基礎를 못가진 林內閣組閣의 根本方針에 同意할 수는 업스나 內外時局이 甚히 重大하야 擧國一致의 協力을 必要하는 情勢에 鑑하야 政府가 會期가 極히 짤븜에도 不拘하고 連續 八十餘件의 豫算案 其他 法案을 提出한 것도 閣僚에 兼攝이 만코 政務官에 連絡을 取하는 者 업서 審議에 非常한 不便을 感하엿기 때문이다 그러나 刻苦精勵 豫算案 增稅案 其他 國力進展 및 國民生活 安定上 必要한 諸法案을 通過시킴에 全力을 다하고 이미 議了한 件이 約五十件에 達하엿는데 三十日 深更 豫算에 關係잇는 最後의 議案인 關稅定率委員會를 마치고 三十一日朝 마침내 本會議에 上程코저 한 때 突然 議事阻害의 理由로써 解散한 것은 不可解千萬이다 그리고 政府 自身은 衆議院에서 最大重要한 社會立法으로서 特히 通過에 努力한 國民健康保險法案 國防必要上 不得已한 燃料法案이 貴族院에서 바야흐로 可決되랴고 하던 際 衆議院 解散으로 말미아마 不成立케 한 것은 矛盾撞着이다 我黨은 天下의 公議輿論에 訴하야 그것이 果然 國家國民에 忠誠잇는 所以인가를 明白히 하야 憲政의 大義를 確立하고 政界淨化刷新의 使命에 貢獻코저 할 決意이다 我黨은 來總選擧에는 廓正刷新의 我黨의 政策을 들고 廓正選擧로써 國民의 面前에 誠意를 披瀝하야 國民大衆을 背景으로 堂堂히 必勝을 期하고저 하는 바이다 (寫眞은 町田總裁)

八面鋒

◇ 議會를 政府所屬의 一個會議機關으로 아는 官僚思想을 排擊한다고 政民兩黨이 떠든다.

◇ 어더한 推進力 때문에 解散의 길을 選擇햇다고 貴族院側에서 批評한다.

◇ 如何間 開會中에 停會, 政變, 再開, 延長, 解散 等等 여러가지 經路를 밟은 것이 七十議會.

◇ 議會가 七十번이나 열리엿스니 老朽腐敗된 點도 업지 안흘지나 議事堂만은 新築한 것 舞臺.

◇ 四月一日, 年度初, 新學期開始, 모든 點으로 새로 出發하는 날.

◇ 金삿갓式이라고 할가 戲作一首—
夜來好雨朝來晴
墻頭莘黃半笑春。
兒倆朝驪登校急
長安滿開人生春。

秩父宮殿下御旅程

【방쿠버三十一日同盟特派員發】秩父御名代宮同妃兩殿下의 御日程에 對하야는 目下 御召列車로 御旅行中의 加奈陀政府代表 킹레이·사이드 書記官과 加奈陀政府間에 詳細協議中인데 오타와府에 到着하기까지 途中 二, 三驛에서 停車하야 御旅情을 慰勞하여드릴 豫定이다. 三十一日早朝부터 록키連峰의 幽邃한 地方자즈바天然公園을 列車가 通過할 때에는 特히 三十分이나 御停車하야 가나디안록키를 御觀覽하여드릴 模樣이다 御召列車는 위니펙市에 二時間 停車 포트·아더市에 御到着時에는 兩殿下께서는 御下車 穀物倉庫, 製絲工場 等을 御視察하실 터이라고 한다 數時間 포트·윌리암市에서 御休養하실 御豫定이오 오타와 御着은 三日午後五時十五分이며 여기서 加奈陀總督 트위드·뮤어 卿夫妻의 歡迎을 바드실 豫定이다

加奈陀總督夫妻謹話

【華府卅日發同盟】加奈陀總督은 卅日 오타와府에서 華府에 到着하엿다가 秩父宮同妃兩殿下를 奉迎하여 드리고저 一日夜 오타와府에 歸還하게 되엿다 트위드·뮤어 卿夫妻는 상가 말한다
秩父宮同妃兩殿下가 加奈陀를 御通過하심은 우리로서 진실로 光榮으로 생각한다 兩殿下를 歡迎하여 드리고저 我等은 今日夜行으로 오타와府에 돌갈터이다

濟生會에御下賜金

【뉴·웨스트·민스터一三十一日發同盟】秩父宮殿下 三十日 뉴·웨스트·민스터一 御通過時에 日本人慈善團體 濟生會는 惶悚하옵게도 金二千圓 御下賜의 光榮에 浴하엿다 兩殿下의 御仁慈하심에 在留同胞는 感激不堪이다

兩中將大將親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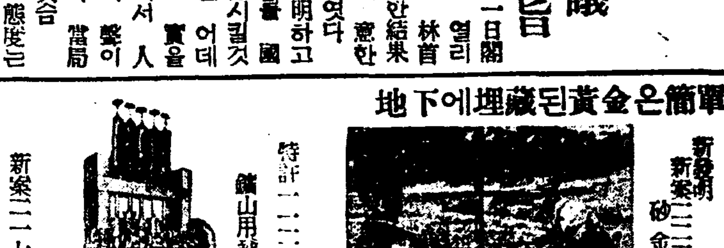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一日午前十時 宮中鳳凰間에 出御 海軍大臣 米內光政 橫須賀鎭守府司令長官 百武源吾 兩中將에 對하야 林首相侍立下에 大將親任式을 行하압시와 親補의 勅語를 賜하압시고 首相으로부터 左記官記를 授與하엿다

海軍中將 正四位勳一等功五級 米內光政
海軍中將 從三位勳一等功四級 百武源吾
任海軍大將(各通)

辭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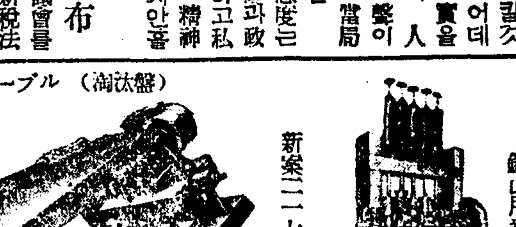
全州地方法院群山支廳判事 有澤作治
補釜山地方法院馬山支廳判事
濟州地方法院部長 戶田常次
補全州地方法院群山支廳判事
光州地方法院部長 安田重雄
補濟州地方法院部長
全州地方法院部長 上野喜滿
補光州地方法院部長
京城覆審法院判事 佐佐木日出男
補全州地方法院部長
總督府屬 谷口文夫
任總督府理事官(七等)
命學務局勤務 須藤繁雄
任京城帝國大學豫科敎授(七等)
總督府江原道屬 林龍俊
任郡守(八等)
命江原道華川郡在勤
大田高女校長兼敎諭 秋葉祐之
任道視學官(四等)
命慶尙南道在勤
平壤師範學校敎諭 中原民藏
任朝鮮公立高等女學校長兼敎諭(四等)
補木浦高女校長兼敎諭
總督府視學官 辻董重
任朝鮮公立高等女學校長兼敎諭(三等)
補京城第一高女校長兼敎諭
大邱師範學校敎諭 播本常次
任朝鮮公立高等女學校長兼敎諭(三等)
補大田高女校長兼敎諭
尙州實業學校敎諭 增田美殖
任朝鮮公立實業學校長兼敎諭(六等)
補尙州農蠶學校長兼敎諭
忠州農蠶學校長兼敎諭 前田潔
任朝鮮公立實業學校長兼敎諭(六等)
補忠州農校長兼敎諭
京城第一高女校長兼敎諭 野野村修瀛
補仁川高女校長兼敎諭
木浦高女校長兼敎諭 三明和郞
補京城第二高女校長兼敎諭
忠南公普校長 中崎竹松
高等官七等待遇
忠南公立小校長 川島隆
慶北公立普校長 松本涉
同 中楨保芳
同 軒原八十一
同 畑添久一郞
同 孫乙仁
慶南公小校長 野口政雄
同 高木佐太郞
同 孫承根
同 輪延德齋
同 照崎鐵太郞
同 猿川博
黃海公小校長 高岡輝雄
黃海公普校長 平松幸平
同 金大燿
平南公普校長 市村三邦
同 田原壽造
同 小田信次郞
同 羅善綱
同 馬承洛
高等官八等待遇(各通)
全南濟州邑長 岡部甲子雄
全南羅州郡榮山面長 李圭逢
江原麟蹄郡麒麟面長 方範疇
咸南定平郡廣德面長 韓熙殷
奏任官待遇(各通)
淮陽郡守 趙豐鎬
文官分限令第十一條第一項第四號에 依해 休職命令
江原華川郡守 李起明
命江原道淮陽郡在勤
總督府理事官 牛島茂作
同 遞信技師 阿井淳
同 道技師 松山智術
抱川郡守 朴玄模
京城中學校敎諭 菅野源五郞
元山 同 大槻賢三
新義州高普校敎諭 小林秀男
京城女高普校敎諭 北古賀順橘
仁川商業學校敎諭 大山錫一
依願免本官(各通)
京城第二高女校長兼敎諭 古谷傳一
仁川 同 伊藤千平
忠州農業學校長兼敎諭 丸山浪吉
尙州農蠶 同 新田貢大郞
依願免本官竝兼官(各通)
朝鮮公立中學校敎諭 倉田信久
任朝鮮公立中學校敎諭(六等)
補元山公立中學校敎諭
總督府理事官 松橋喜代治
陞敍高等官四等
總督府屬 牛島茂作
任總督府理事官(七等)
命農林局勤務
京畿道技手兼京畿道屬 松山智術
任總督府道技師(七等)
命京畿道在勤
總督府遞信技手 師井淳
任總督府遞信技師(六等)
朝鮮公立高等普通學校敎諭 小林秀男
任朝鮮公立高等普通學校敎諭(七等)
補新義州公立高等普通學校敎諭
朝鮮公立實業小學校長兼敎諭 丸山浪吉
陞敍高等官四等
總督府郡守 趙豐鎬
陞敍高等官五等
朝鮮道立醫院醫官兼總督府公立專門學校敎授 石原貫一
依願免本官竝兼官
朝鮮公立高女校長兼敎諭 古谷傳一
同 伊藤千平
勅任官待遇
朝鮮公立中學校敎諭 大槻賢三
任朝鮮公立中學校敎諭(七等)
補元山公立中學校敎諭
朝鮮慶尙南道公立普通學校長 森本藤助
陞高等官六等待遇
朝鮮平安南道公立普通學校長 赤堀健一
同 金鐘文
朝鮮全羅北道公立普通學校長 全日憲
朝鮮忠淸南道公立普通學校長 松岡貞彦
朝鮮全羅南道公立普通學校長 宋貞淳
朝鮮忠淸北道公立普通學校長 嚴翼來
朝鮮咸鏡南道公立普通學校長 山崎正介
陞高等官七等待遇
朝鮮慶尙北道公立普通學校長 藤元金次郞
高等官八等待遇
朝鮮公立中學校敎諭 倉田信久
依願免本官
總督府理事官 松橋喜代治
依願免本官

地下에埋藏된黃金은 簡單한砂金試掘機로!
タラッシャ(破碎機)
新發明 新案三三二七號 砂金試掘機
特許一二二〇〇號 鑛山用鍍條搗鑛機
新案二二七四〇號
テーブル(淘汰盤)
京城府中林町 電本局八六三番
朝鮮鐵工所



スポーツ用品 ヒ服裝
京城壽松町
大京スポーツ商會
電光二五八二番
振替京二五八七八番
カタログ進呈 要送料三錢

本社特製繩機 大光式ヒカリ號
特許逆轉自働防止 經快無比音美細
쟁기급보습 今印峰犁 鮮滿總販賣元
大光式ヒカリ號製繩機 大光式ヒカリ號叺機 大光式ヒカリ號扇風機 製造元
日本クーボ・ルベシヨ鍊本 其他農具一般製作及卸商
京城府黃金町二丁目太田ビル內
大光農機具製作所
電話本局六六四七番 振替口座京城九〇五番
峰元製크合耐久力他品의三倍 各種쟁기에通用



恩給 五年分以上 低利立替 當金融商會
京城府中學町一四 電話光二七五八番

朝報案內

女店員至急募集
年齡十八、九歲 人女子事務員 筆跡履歷書 卜面談
株式會社 村木時計店
京城 電話 四七一番

募集
十數名 ... 京城府西大門 ... 市內

人氣總集中·朝光의放射線은全世界를威壓한다·不日來絶版!速히注文하라!!

朝光四月號發賣中

恒常朝光은 大衆의 편이 되여 그 豪華絢爛한 內容을 갓고 每月 꾸준히 讀者아페 나타나고 잇는 것은 우리 雜誌文化界에 커-다란 驚異的 存在라고 할것입니다 이제 四月號는 發賣되자 意外에도 注文이 殺到하야 不日絶版되게 되엿으니 오즉 本誌가 恒常 大衆의 참된 벗이 되는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朝光四月號를 速히 注文하소서

崔承喜渡米送別座談會

朝鮮이 나흔 世界的 舞姬 崔承喜가 十五萬弗 契約으로 米國을 간다. 이 機會에 故鄕山川에 도라와 머길 떠날 告別의 情熱的 춤을 추엇다 人氣는 衝天 年晝夜特超滿員이엇다 「朝光」은 오는 첫걸로 이 人氣의 崔承喜를 招請하야 座談會를 열엇다 過去 現在 未來의 藝術과 生活에 對하야 戀愛 結婚 契約 其他에 對한 興味百퍼-센트의 이야기는 그의 아름다운 입술로 通해 綿綿이 풀려나왓다 그는 理智的인 舞姬다 그러나 理智 그 속에 끌는 情熱이 잇다 이 舞姬가 무엇을 말하엿나? 또 朝鮮女流藝術家들은 무엇을 그 崔承喜에게 물엇나? 이는 누구나 읽지 안흘 수 업는 特種座談會다
(出席人) 崔承喜 崔承一 毛允淑 李善熙 鄭燦英 그리고 本社側 咸大勳 盧子泳 崔貞熙

結核豫防讀本·結核座談會

結核은 靑春의 敵이다 結核 때문에 죽은 앗가운 靑春이 얼마나 만흔가? 또 이 病 때문에 苦痛하는 이가 또 얼마나 만흔가? 本誌는 이에 늣긴 바 잇서서 朝鮮醫師協會와 協力하여 結核의 豫防及治療에 關한 論文을 엇게 되엿다 執筆한 분은 모-두 醫學博士요 斯界의 權威로서 스믈여섯 분이나 執筆하엿다 이것이 얼마나 權威잇는 論文集인지는 누구나 疑心할 수 업는 것이다 더구나 平易하게 써서 小學校卒業程度면 누구나 읽을 수 잇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분들과 本社記者와 合席하여 一大結核座談會를 열어 滋味잇게 읽을 수 잇도록 이 結核에 關한 座談會速記錄을 揭載하엿다 結核患者는 勿論 이에 걸리지 안흔 분도 미리 豫防하기 爲해서 이 글을 읽어두라 이리하여 靑春의 가장 무서운 敵인 結核病에 걸리지 안토록 注意할지어다

提琴家엘만會見記

로시아가 나흔 世界的 提琴家 엘만이 朝鮮에 왓다 그는 하로스밤 京城府民館에서 그 情熱의 演奏를 하여 音樂팬의 大喝采를 바덧다 그는 十七歲에 米國서 初演奏를 한 天才的 提琴家로 朝鮮에 오긴 처음이다 이제 本誌記者는 이 기회를 노치지 안코 苦心하야 한 時間 동안 흠만나 이야기하게 되엿다 그의 音樂, 映畫, 家族觀, 그리고 그의 朝鮮觀, 朝鮮女子印象, 朝鮮音樂家에게 보내는 말은 어떤 것인가? 이제 本誌記者와의 會見에서 그는 赤裸裸하게 吐露하엿다 朝鮮音樂팬은 누구나 읽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본 가지가지 朝鮮에 對한 印象을 말한 것을 우리는 再吟味할 必要가 잇다

奇一博士追悼特輯

奇一(게일)博士는 朝鮮의 恩人이다 博士는 朝鮮文化에 燦然한 偉人이다 그리든 博士가 本國인 英國으로 도가서 數카月 世上을 떠낫다 우리는 이 機會에 잇서서 그의 生活과 業績을 紹介하고 또 그의 親舊及親知들의 글을 실어 그를 追慕하는 意味로 特輯을 만드럿다 그는 純然히 宣敎師만이 안이엇든 것은 이제 새삼스러히 말할 것도 업는 것이지만 이 글을 읽음으로 다시 博士의 커-다란 功績을 再認識할 수 잇슬 것이다

結城財政·三中全會 特論文

新內閣成立以來 財政政策은 어떠케 變轉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 實際生活에 잇서서 喫緊한 것이다 이리하여 本誌는 結城財政의 今後方向을 徐椿氏에게 依賴하야 一大論文을 揭載하게 되엿스니 이 論文을 읽음으로써 今後 財界의 動向을 窺知할 수가 잇슬 것이라고 밋는다 그러고 極東의 火藥庫라고 할 수 잇는 中國에 對한 李元坤氏의 三中全會와 中國의 前途는 또한 國民黨과 共産黨의 合同한 經緯와 또 今後 그들의 갈길 그리고 또 蘇國에 對한 今後의 態度等 이는 極東問題를 둘러싼 重大問題니만큼 注目할 問題이다 이 글을 읽고 그 內容을 알어두라

鼓手五十年韓成俊一代記

五十年 동안이나 북채비로 세월을 보낸 韓成俊氏! 그는 남모르는 눈물속에 춤을 배우고 북치는 것을 배와 오늘날 朝鮮古代藝術의 한 날개를 붓들고 잇나 그는 어떠케 그것을 배웟나? 그리고 북 한 개로 五十年을 지내는 동안 어떠한 고초를 겪어 왓나?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잇나? 장차는 어떠케 할 作定인가를 本報記者가 流麗한 文章으로 씀 흥미진진한 글이다 꼭 한번 읽을 글이다.

陽春隨筆·陽春明暗二重奏

봄이 온 건 文人의 붓대에만이 아니다. 봄서 볏이 다사롭고 아즈랑이 쏘차 아롱거린다 이 봄에 世上은 어떠케 變轉하고 잇는가? 이제 陽春明暗二重奏와 陽春隨筆은 春光春色이 빗나는 요즈음에 잇서서 한번 읽어볼 만한 것이다 아름다운 美文이 心臟을 파고드는 人生의 가지가지 斷片이 이 글 속에 숨어 잇나 人生을 알려는 人生에 시달린이 누구나 한번 읽어 다시금 人生을 알을라.

四月의文藝

四月號엔 金顯奎(劇硏百聞)의 戲曲 貨幣淸算者 李光來兩氏의 長篇 戲曲이 두개나 실렷다 그리고 長篇小說 未完成 川邊風景 그리고 崔貞熙, 張德祚, 玄風氏의 短篇 한卷 雜誌에 創作만을 七八篇 揭載하는 것은 「朝光」이 안이면 읽어볼 수 업는 犧牲的 奉仕인 것은 두말할 必要가 업는 것이다 (그런데 每月 紙價, 印刷料가 暴騰되엿는데도 不拘하고 四百頁을 그대로 계속하는 그 奉仕의 一面을 愛讀者 諸氏들은 理解하여 주옵소서)

其他興味津津의論文滿載 美麗한表紙 그리고 豪華로운當報四百頁의大雜誌面目一新!!

—四月號大人氣!!—

註文은先金·即速注文하라!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口座京城五八七八番

定價四十錢

오늘부터 學校에! ——(市內各普校一齊開學)

入學競爭의激化는 京城集中의反映

시골兒童이 서울學校로만 몰리는까닭

今後는地方中心으로調節

聖戰의餘韻

금년시내 각 중등학교 입학지원자는 작년에비하야 사할내지오할의 격증으로 백명모집하는학교에응모자가일전오백명이란엄청나는 수짜에달하야 자녀를둔일반가정의 장래를위하야 주야로근심과 염려가끈칠때가 업는 실로교육계 중대한 문제로되어잇다 그런데 특히경성시내에잇는각중등 학교에는 전조선각지로부터 모혀드는보통 학교졸업생으로하야 응모자 한사람이최소한도로 열명을떠러트리고 나야반겨우 입학될가망이 잇게되는데 이것은경성에잇는 중등학교가 지방에잇는 중등학교보다 설비 선생기타모든 내용이충실하야 호일상급학교 입학하기에 용이하다는 종래관념이 뿌리깁히백혀서 경성으로만 집중하게되어 여간성적이 량호한사람도 도저히입학할 도리가업시 되고마는현상이다 이에대하야총독부에서는여러가지로 그대책을강구한결과 십년계속사업으로 전반적으로 학교를증설 또는증학급하야 입학난을 완화식힐방침을세웟는데 이것도장기계속으로 급속한해결책으로는 너무여러가지부족한점이 만흠으로위선 래년부터는 각지방보통학교 졸업생으로 중등학교입학희망자는 되도록 그지방중등학교에 입학하도록 각도에지시할터이며 이와동시에 금후증설하는학교는 지방중심으로설치하야 그지방입학지원자는 그지방중등학교에 수용하도록 하기로되어다

地方出身의兒童은 그곳學校에收容

入學難緩和救急對策

富永學務局長 談

이에대하야 총독부영학무국장(富永學務局長)은 다음과가티말한다

경성에잇는 중등학교에는 전조선각보통학교졸업생들이집중하는관계로 더욱응모자가만케되는데 실상 경성에잇는중등학교라고 별로더설비 기타내용이충실한것도업다 래년부터는 각도에잇는 중등학교입학희망자는 그도중등학교에입학하도록 다소제한하야 경성집중폐단을업게할방침이다 전문학교이상은 엇절수업는형편이나 중등학교는 어데나 대개마찬가지인족 구태여 경성으로만 모혀드러서입학난을 떠들까닭이 업다 그리고 금후중등학교증설, 증급은 십년계속사업인데 되도록 지방중심주의로할방침이다 이입학난문제는 아무리하야도 일조일석에해결할수가 업는것이족 위선이상에말한바와가티 각도로하야금입학구역을소제한하도록하야입학난을완화케할방침이다

上告棄却判決 吳辯護士父子에게

일이십에서 징역시월과 징역팔월에 이년간집행유예 판결을 밧고 고등법원에 불복상고해온 소위요덕금광(耀德金鑛)사건관계자평양부계리(平壤府鷄里)오십번지변호사 오숭은(吳崇殷)(五○)과 그의아들 오현호(吳鉉祜)(三○)두명에관한 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행사 조선광업령위반(文書僞造行使公正證書原本不實記載行使 朝鮮鑛業令違反)피고사건공판은일일고등법원에서 히루(廣瀨)재판장주심 산택(山澤)검사 관여미테열렷는데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대로상고리유가업다하야 그들에게상고기각판결을 내리엿다 따라 그들의 형은 다음과가티 원심판결대로 확정되엿다

▲吳崇殷(五○)懲役十月▲吳鉉祜(三○)懲役八月(二年間執行猶豫)

거스름돈詐欺漢 昨日、益善町에또出現

巧妙한手段에는警察도無色

담배가게 혹은 잡화상점을 전문으로 거스름돈 사기를 하고다니는 괴한이 작금 시내각처에 출몰하야 그피해건수가 이미십여건에 달하고잇스나 아직 그범인의정체조차 붓잡지못하야 수사당국을 당황하게하고 잇는이때 또다시 종로서관내에서거스름돈사기가 발생하야 이곳칠줄모르든 사기한의 횡행으로시내일반소매인들은 크게 불안을 늣기고잇다 즉삼십일일 오후야홉시쯤에 시내 익선정(益善町)일백륙십삼번지 잡화장사하는조동선(趙東先)(三七)의집에 어린아이셋이와서 수은정(壽恩町)일심려관(一心旅館)아프로 맥주두병과 거스름돈 구원오십전을 가지고오라고하기에 그집심부름하는 아이가 그말대로 전기장소에 가지고갓드니 키가다섯자세치가량되고 얼굴보아서 미남자다운권양복을 입은청년사나이가나서면서 그거스름돈과 맥주를가지고 어디론인지 종적을감추엇다고하야 그서에서는 방금그범인을 엄중수사중이다

라디오聽取者激增 七萬二千七百餘名

라디오청취시설허가수는 체신국 삼월말현재에잇서서 일본내지인 사만구천삼백사십구인 조선인 이만이천칠백칠십칠인 외국인 오백오십륙인으로 그합계는 칠만이천륙백팔십이인이어서 전년동기에 비하야 일만구천팔백이십구인의격증을보이엿다

地方商人만相對로 巧妙한出資金詐欺

支店看板과高率配當이미끼

幽靈賣藥會社名義로

매약판매주식회사(賣藥販賣株式會社)라는 유령간판(幽靈看板)을밋기로 교묘한 출자금사기를 도모한사건이 동대문서원에게 탐지되여 동서에서는지금 범인체포에 맹활동을시작하엿다

사건주인공들은 부내에거주하는자로 주소 씨명은 비밀에부침으로 아직 알수업스나 이자들은 전조선각지농촌시장(農村市場)으로 도라다니며 액면오십원의 주식한주를사면 판매점(販賣店)두주면 출장소(出張所)네주면 지점(支店)의간판을 주어매약상을하야 만흔리익을 보게할뿐아니라 전기 출자금에대하야는 회사에서 년이십할이상의배당을 보증함으로 이백원출자한사람은 오년후에는 적어도 이천원이란리익배당수입이 잇다는 요사히 가튼호경기시절에도 좀처럼듯기어려운경기조흔이야기로 지방상인들의 리욕심(利慾心)을 마비식혀 대대적으로 일확천금을 계획한것으로 벌서 그마수에걸린것만도 수천원의 거액에 달하는모양이다 그리고 동서에서 이와가티 교묘하기짝이업는 신발명의 사기사건을 알게된경로는 어떤지방사람이 이런권유를바든 어 그회사의 내용을무러본데서 단서를알게된 것이다

醉하야言爭고테 含怨코虛僞의申告

사월일일 새벽두시쯤 부내원정(元町)일정목이십이번지 남권반(南券番)압 지점에서 다리에 피를 흘리고 길가에 누어잇는 소년한명이 잇섯는데 야경군이 이를발견하고 소관룡산경찰서파출소에 알리자 곳부근송야병원(松野病院)에입원시기여 응급치료를하엿는데그의상처는외편다리부절골로 전치일개월치료를바라야하게되엿다 그는 원정(元町)일정목삼십번지 삼판하마(三坂하마)방에하숙하고잇는 철도경성역차구용인 평야민부(平野敏夫)(二十)로 상처의원인을 무르니 아지못할택시-가 질주하고가다가부상을입혀노코 도망햇다는신고를듯고 룡산경찰서에서는 살인택시-를엄탐하며 야간에일백여대를 조사해보든 철야소동의 활동을 하엿스나 전기평야(平野)의신고가 허위인듯하야 재조사한결과 그는 지난삼십일일밤에 부내대도정(大島町)에사는무전신부(武田信夫)(二三)와가티황금정(黃金町)에잇는"오뎅"집에가서 술을취하도록 마시고 본정택시를불러타고 원정(元町)일정목이십이번지 까지왓슬때 자동차임금문제로 준다안준다는 시비가 일어나자 운전수는 취한사람을 상대할수업서 그의나리는것을보고 그가취해온 임금을받든뒤에 운전하고도라가려할때 또다시 싸움이되자 평야는달려가는자동차에 갈려고하다가 떠려저서 상처가난것이판명되엿다 한다

自動車에斷脚

지난삼십일일오후여덜시삼십분쯤 부내공덕정(孔德町)일백칠십삼번지의이십이호에사는 유갑룡(尹甲龍)(八)이가 아현정(阿峴町) 사백사십구번지압차길을 횡단하려할시음 서대문을 향하야 질주하든 가회정(嘉會町)에사는

至急電話申請 前期보다半減

總三千七百九十三通

지난이십오일부터 밧기시작한 체신국 경성중앙전화국(京城中央電話局)의 지급전화개통(至急電話開通)신청은 마금날인 삼십일일 오후네시까지 그신청수부를 끗마첫는데 그총수가 삼천칠백구십팔명에달하엿다 금년도는등의가납금을 바닥승으로 작년팔천오백이십팔명에 비교하야 칠신 준것은 필요도업는데 요행을바라고 신청한것이 줄어든것을 웅변하고잇다

普校訓導橫死

汽車에跳乘타가

삼십일일오후한시에 평양을떠나 정주로가든 제일백구십일렬차가만성(萬城)역을 떠난뒤 약일백이십미돌되는곳에서 렬차압헤서 뛰여와서 올라타다가떠러저 두다리가 차바퀴에 갈려끈허저버린 남자한명이 잇섯는데곳그역에서 응급수당을하고서 에양철도병원으로 수송하든도중 평고만 죽어버렷다 조사해본결과그는 신안주 보통학교훈도안지국(安志國)(二七)씨로판명되엿다

漂流男子屍

일일오전 열시쯤 부내현석정(玄石町)도선장부근 한강연안에 주소씨명불명의 남자의 표류시체가 밀여잇섯는데 그시체로보아서 이십일세쯤 되여보이는남자라는데 사후상당한 시일이걸린모양이라한다

各學校合格者

中央保育(四十九名)

金 鐵 金貴淑 李谷栽 白玉姬 姜谷秀 崔銀順 李圭潭 金順澤 朴富姬 方愛德 金謙愛 徐援熙 郭信愛 金貞燮 金惠蘭 李文校 李範富 宋相儀 韓淳一 朴福順 鄭永楨 申昌善 李用姬 鄭熙永 全玉姬 李燦妹 田有鳳 閔敬愛 張鳳進 安貞子 曹碧峰 李貞淑 姜化淑 李貞順 金會妃 陳曉姬 美金春 張命金 張 亨 劉宜烈 辛壽山 裵良玉 朴仁伊 朴永樂

監督脚色 申敬均 撮影 梁世雄 近日優美舘에서封切
成大勳原作 純情海峽 映畫化
出演 金一海 獨美鄕 金映玉 金德心
第一回

中等選拔野球經過

大每主催의 第十四回全日本中等學校選拔野球大會第五日은 一日午前十時부터 甲子園球場에서繼續擧行한바 當日의各校戰況은 다음과가탓다

【第二回戰】

島田商業	100001000	2
東邦商業	103120000	7

【準準決勝戰】

平安中學	000000000	0
中京商業	00110000A	2

運動界人事·集會

▲許萬鍾氏(白狗滑氷俱樂部顧問) 지난二十九日에 鄕里金海로부터入京 太平通奉三旅舘에投宿

天氣豫報

概況 七六八粍의 高氣壓은 滿洲로부터 半島를 經하야本州西部에뻐처잇고 오호츠크海方面은 氣壓이낫다 滿洲는 晴 朝鮮은曇 國境中部에는 降雪이잇다 또新義州에는霧, 全州에는小雨가잇다 本州는晴 琉球諸島及 北海道는曇 樺太는降雪도 잇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는개엿다 흐렷다하며 明日도개엿다 흐렷다하겟고 全部도同一하다

昨日 最高 十二度
〃 最低 零下二度
今朝 最低 二度七
今日正午 八度一

廣告

京阪神在留朝鮮人 生活도漸次安定

社會事業의施設은理想的

총경(東京) 대판(大阪) 경도(京都) 신호(神戸)등지에 사회사업시설상황을 시찰하고자 약일삭전에 출장하얏든 총독부류생사회과장(柳生社會課長)은삼십일일오후 귀임하얏는데 동과장은 다음과가티말한다

동경 대판 경도등각도시의사회사업시설은 비교적 완비되엇다고하겟다 특히대판의 아동원(兒童院)가튼것은 실로그시설이 매우잘되엇고 또그조직내용도 매우리상적이다 조선에도 아동 즉 제이세(第二世)조선인을 위하야 여러가지시설을 계획하는중이다 경도는 사회사업시설을 비교적완전히하야노코잇스나 일이업다 사회사업기관의 구제를 바들만한 상대가업다 그만치경도시민들의 생활안정이 어느정도까지 되여잇는것을 잘알수가잇다 몃해전까지도 동경 대판 경도등지에서 조선인에게는 세스도을내지안는다고 세스집을빌리지 안혓섯는데 때에는 집임자들이 자진하야 집을 조선사람에게만 빌려준다고한다 그것은 세스돈을일본내지인보다 잘내는 동시에다소 비싸게도밧을수가잇는까닭이라한다 이로써 대판 경도등지에 재류하야잇는 조선인의생활이 다소 안정되엇스며 또는이격적수양과 자각이

總督府柳生社會課長視察談

매우 진보되엇슴을 알수가잇다 경도에는 조선인실직자가업시모두 직업에안정되어잇다 그리고 동경 대판에는 부청조사에의하면 조선인실직자가만흔것가트나 부사회과에서는그날그날로동자를모두실직자로 편입하야취급하얏슴으로 조사한수짜로는 실직자가 만흔것처럼되어 잇스나 실상은 얼마안되는 모양이다 하여간재류조선인들은동업상업 로동 기타직업에 나아가서 오륙년전에비교하면 훌칭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매우진보되어서 극히호성적을보이고잇다

水標町에棄兒

삼십일일오후열한시삼십분쯤에 부내수표정(水標町)이십번지 정신옥(鄭信玉)의 집에서 대문여는소리가남으로 나가보앗드니 어떤사람이 두살가량되어온 조선인 여아를버리고갓다는데 종이에 류월이십일 오후여멋시 삼십분이라고 씬것이 따라저잇섯다고하며 그아이는 당분간김씨집에서 양육하기로하엿다고한다

交通事故로 警官도團束

뒤늦이여서 속출하는 교통사고를미연에 방지하고자 당국에서는 여러가지로 새로운대책을 강구하고 그취체진(取締陣)을 강화시키고잇는 우수한경관자에는 타지말라고 일부로서 감철도사무소에 엄중한 통첩을 발송하엿다한다 그것이 때로는 무면허 혹은 서투른운전으로말미암아 발생하는 교통사고가적지안허 작년일년간에만 이가튼사고가 세건이나잇서 취체당국자자신이 이래서야 되겟느냐하고 수일전 경기도경찰부장의일홈으로 편하각서에 엄중히 주의식히도록하라는 경고가잇섯다고한다

解雇된職工에同情 全工場職工動搖

製綿部廢止로二十餘名馘首

釜山朝鮮紡織에서

【釜山】부산부범일정(凡一町)에잇는 조선방직주식회사(朝鮮紡織株式會社)에서는 지난삼십일에동회사공장직공중 제면부(製綿部)직공 이십명을 동부를폐지한다는리유로 해고하얏는데 이소식을들은 일반직공들은 해고당한직공들에게 동정하는 동시에 동요하고잇서 장차동정파업을하게될는지도모르는 형세이므로 부산경찰서에서는 방금엄중히 경계하고잇다고한다

東京에서追悼會

金玉均先生死後四十四年

【東京】금년은 고 김옥균(金玉均)씨가 상해객사에서 흉컴에돌아간지 사십사주기(四十四週忌)가됨으로 동경에 잇는 고인의 묘소(墓所)가잇는 동경시본향구봉내정이십삼번지(東京市本鄕區蓬萊町)진정사(眞淨寺)에서지난삼십일오후두시에 추도회를열엇는데 고인의대표로사다고(鈴木사다子)와 당시친분이두텁든 정상각오랑(井上角五郞)씨등 다수인사가모이엿섯다

鐵道局員家族 特急乘用禁止

요지음 기차마다 려행객이무척 만하서 철도국에서는 여러가지로 그완화방법을 강구하는터인데 철도국원및그들의 가족의 려행은 「노조미」「히까리」는가

全線의交通量과 列車通學生狀況調査

鐵道局서十二日부터四日間

철도국에서는 장래의 수송계획의 재료를삼고저 전조선철도선에 오는십이일부터 십오일까지 일제히교통량(交通量)을 조사하기로되엿다 그러고 십오일에는 렬차통학생의 조사도할터이라한다

人事一束

朴東奎 文貞晳 林靑蓮 林曉 崔義澤

全朝鮮軟式野球 今年度日程

全朝鮮軟式野球聯盟과 京城軟式野球聯盟에서는 四月一日에今年度「스케쥴」을 다음과가티決定發表하엿다

全朝鮮軟式野球聯盟

一、全朝鮮都市對抗優勝大會(自八月十五日至十七日·京城球場)

二、朝鮮神宮奉賛大會兼全朝鮮選手權大會(自十月十四日至十七日·京城球場)

京城軟式野球聯盟

一、京城軟式野球優勝大會(四月二十四日·京城球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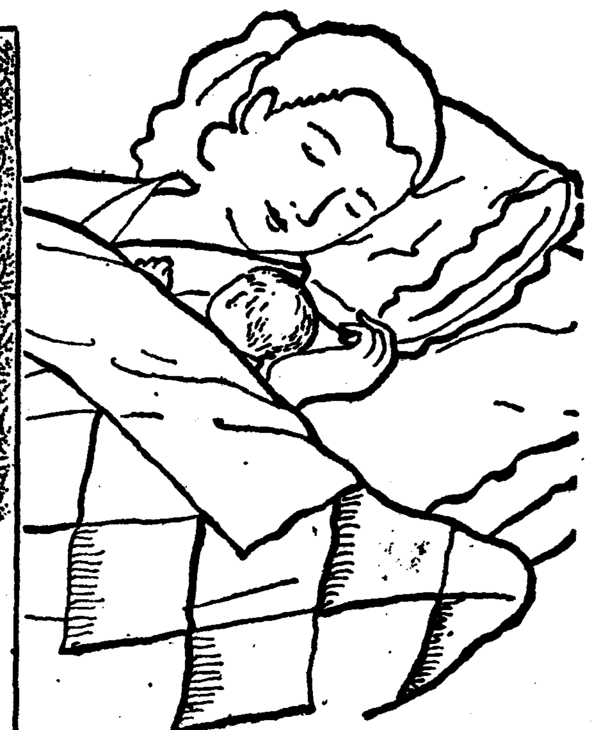
二、全朝鮮都市對抗京城豫選大會(七月三日·京城球場)

三、朝鮮神宮奉賛軟式野球大會京城府豫選大會(九月五日·京城球場)

陽春の皆様へ贈る豪華プロ
明治座
大坂夏の陣 六日マデ
極樂雙兒合戰
お馴染の スタン・ローレル オリヴァ・ハーディ 打ち揃つて二役主演
この新作長篇喜劇でローレルとハーディは双兒を演じてゐますこのひよんな双兒が女の子をめぐつて混線・亂戰のかぎりを盡す。お色氣も、ちよつぴり覗かせての爆笑篇です！
大坂夏の陣 七日ヨリ
淑女は何を忘れたか
鬼才小津安二郎監督 栗島すみ子 齋藤達雄 飯田蝶子 桑野通子 佐野周二 共演
鬼才、小津道角方向轉換を宣言す。その波紋たるや、正に本年度最大刮目のトピックでせう。小津、栗島の取組は往年の「お孃さん」以來のものです。して見れば豪華な明朗に包まれるこの一篇こそは明朗の裏に起伏する鋭い皮肉こそ現實に切り込む名匠の名刀なのでせう！
平日は午前十時迄 日祭日は午前九時半迄
早朝御優待 大人八十錢を…五拾錢に 小人學生五十錢を…參拾錢に 割引御優待
早朝割引御優待

元和元年
大坂落城豊臣家沒落哀史の悲壮にして雄渾、豪華絢爛たる戰國圖繪！更にサムライ日本の本道を如實に示す最初の本格的國際映畫として歐米の銀幕に君臨登場せんとす實に我國映畫界永遠に輝く空前の翹望超スペクタクルである！

母子의保健藥



姙産婦에 錠劑 わかもと는

一、胃腸의活動을돕고食慾을旺盛하게하며惡阻를防止한다
二、浮腫과痲痺를업새고腎臟炎、脚氣를防禦한다
三、每日規則的으로便通을하게되고腸內의黴菌을죽인다
四、身體의組織을强하게하고安産을하게한다
五、血液을增加하고貧血을恢復한다
六、産後의살이오름을速하게하고젓이잘나게한다
七、微熱이나盜汗을업새고衰弱을恢復식힌다

乳幼兒에 錠劑 わかもと는

一、消化器를强化、綠便、粘便을健康한大便으로한다
二、榮養의偏頗를막고發育을順調롭게한다
三、젓의成分을조케하고乳兒脚氣를輕快하게한다
四、血色을整調하고토실토실살찌게한다
五、人工榮養兒의發育을도읍고消化不良을防止한다
六、身體의組織을强靭하게하고感氣에안걸리게한다
七、病菌에對한抵抗力을强化하고、腺病質을健康한體質로만든다

全國小學校에 敎育掛圖寄贈

「錠劑わかもと」에添付한「掛圖寄贈引換券」을わかもと本舖로보내주는學校에 新聞紙二頁大(高級色刷)의 高尙한敎育掛圖를無代進呈한다

掛圖種類는 每月、學年、學科別로多數刊行、小學校에서의照會次第詳細한規定書送呈한다

비타민B 複合體含有에 倍加成功

「錠劑わかもと」의效果가一般的으로알리여젓고그聲價가놉하진結果酵母劑麥酒酵母劑イースト劑等과 類似한 藥이만히出現하야「錠劑わかもと」와똑가튼效果가잇다고宣傳을하고잇스나元來이藥은近代藥學最大의發見이라고할수잇는 헤ー꿰와아스페루기루스오리ー제中의最良菌種을專賣特許方法으로製劑한高貴藥이니衰弱恢復乳幼兒發育에업서서는안될비타민B複合體의含有量을發賣以來苦心硏究한結果倍加하는데成功을하얏슴은世界에자랑할만한設備를가진弊社의工場에서비로소만들게되는바이니類似品에迷惑치안토록特히注意해한야다

類似藥に御注意

發育狀態が向上します

虛弱한乳幼兒는、榮養을吸收할만리弱함으로、밤낫배탈이나고、感氣도잘걸리며、體重의增加도 非常微弱해진다

각가지榮養劑를먹여도 充分히 吸收하지못하야 쉽사리 튼튼해지지안는대「錠劑わかもと」를 멕이면、發育狀態가一變하야 배탈이나거나感氣에걸리지안케되며 體重의增加됨을目前에볼수잇다

이것은「錠劑わかもと」가 普通榮養劑와달러乳幼兒의身體를造成하는 細胞를强健하게하고 榮養을 吸收하는器管을 튼튼하게하는 作用 細胞原形質賦活作用이 잇슴이니 他의榮養劑나 消化劑처럼무슨 榮養을 준다든가消化를돕는다든가하는것이아니고 乳幼兒가 自己스스로 榮養을攝取하는힘이 活潑하게되도록만드러주는까닭이다

安産と保健のマスコット

姙娠中인孕婦가 弱하고보면 乳兒도弱하야지며 早産이나 流産의原因도되며 또는 難産으로 産後의貧血이나 衰弱도回復되기힘든다모처럼 愛兒를낫서도기를수업게됨으로弱한분은姙娠中에『錠劑わかもと』를服用하야 튼튼한 乳兒를安産할수잇도록準備工作을 해둠이緊要하다

姙娠中의婦人이『錠劑わかもと』를먹어서 第一먼저눈에 띄우는것이 食慾이나서 만히먹게됨으로 榮養이 充實하게되며 每日一回乃至二回의規則的으로 便通을 하게되는것이다 食慾이 늘어榮養이 充實하고 便通이 規則的으로되면 惡阻나 浮腫이나 産後의衰弱貧血等에 걸닐必要도업고 胎兒도順調롭게發育하야 튼튼한 乳兒를安産할수잇다

胃腸榮養 錠劑 わかもと

와가모도

製法專賣特許

藥價低廉 一日僅か數錢

錠劑 三百錠 一圓六十錢
一千錠 五圓

三百錠은大人에게廿五日量・十歲前後兒童에는約四十日量・五歲前後에는五十日量・三歲前後는六十日量에該當

東京市芝公園
(株)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
振替東京一七〇〇番
電話芝代表二一七五番

구두보다빠른 룰러스케이트

매끈매끈한 세멘트바닥우에서 어룽지칫듯하는 『룰러스케이트』 이것이, 취미오락이며 스포-츠의 영역을떠나 우리생활에 실익을주는 한가지필수품이되어오는 경향이잇습니다。 위선『카나다』『토론토』지방에서온 소식을드르면 자동차와 타이아공장가튼 상공게에이 『룰러스케이트』가 실용화되어 잇스며 더구나 미국서는 벌서부터 여러방면에 이것이 이용되어잇는데 사진에 보이는바와가티 『워싱톤』우편국 여자종업원들은 사무진행의『스피-드업』을 위해서 재각금발에 룰러-를달고다닙니다。

헌전차를사서 문화주택

『산디에고』라는 곳에서는 그곳의시내전차의 폐물을 처치하기가 대단히 곤난하야서 쩔쩔매고잇던차에 엇던집장사가 이것을사겟다고하야 열여섯대의헌전차를 사갓습니다。 그런데 이러케쓰지못할 헌전차를 사다가아조머쟁이 문화주택을 만드러서 세집으로 노핫는데 집이 여덜채라 꼿 사글세군이 몰려와서 세집은 다차고 말엇습니다。

이 전차로만든 문화주택은두대의 전차가 한데모혀서 한채집이 되엿는데 한편에 네채식 여덜채가 보기조케 느러서서 조고만한 동리를 만들고 잇습니다。

집장수의 말을 드르면 한채집의 면적은사방사백자로서 사랑방과 안방과 목욕탕 부엌간 식당 가튼것이 모두 버젓하게 되여잇다고 합니다。

고흔눈에고흔마음 눈은마음의창

—생활과성격이엿보인다—

대체 얼골의됨되미가운데서 눈처럼 신비적이요 매혹적 인것은업습니다。

인류는시(詩)를 가진이후부터 언제나 크다란눈ㅅ동자를 찬미해왓습니다。 옛날히랍나라와 『마호메트』교도들이 남긴기록을보드라도 풍습을노코보면 크다란 맑은눈을 미(美)의 특성이라고 생각햇고 심성(心性)의 락원함을 표시한것이만습니다。

『호-마-』가쓴 『주노-』의눈 『소크라테스』의눈은 크고 둥글고 깨끗햇다고합니다。

조선서는 눈큰것을 조와하지안흔편이엇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여기서도 커다란 서늘한눈이 찬미를 밧게되고, 더구나 단발을한다 퍼-메넨트웨이브를한다 색채가 강열한양장을한다 하는데드려서 눈이실눈이어서는 참으로 적막할것입니다。 그러키때문에 『아이섀도-』를해서 눈을 크게보이도록하고 더구나 저형외과의힘을 빌어 적은눈을되도록 크게만들고하지안습니다。

◇

『눈은마음의창』 이러한 말도잇지만 눈의매력과함께 빗갈에 잇습니다 이빗갈에의해서 그사람의생활과인격을 알수잇는것이라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흰눈자우는 푸른기가 돌지만 노인네들의은 눈황갈색을 띠우고 잇습니다。 어린아이들의흰눈자우는 푸르고 깨끗한푸른기가들고 나이찬아가씨들 순진한처녀들의 흰눈자우는 맑은호수와갓습니다。 그것은 마음이항상 평온하고 맑은증거입니다。 흰눈자우가 충혈이되어 붉은기운이도라서 청어눈처럼된것은 참말로처합니다 질투, 분노, 격정, 탐욕! 이러케마음의동요를 표시한것이라고볼수잇고 또그생활이얼마나 과도의노동을하고 잠이부족하고 섭생이잘못되고하는것을 알수잇습니다。

성적(性的)으로 거치른생활을하는 어떤여자들의눈은 붉게타하고, 또그표정이 여간쌀쌀하지안습니다。 그다음에 눈의빗갈과함께 외게의광선과의 관게를이저서는 안될것입니다。

『로-마』의시인 『오-뷰드』는 『사랑하는연인들이여 사람은 황혼에 속사여라』하고읊펏습니다만 사람의 눈ㅅ동자는 석양이기차워울수록 그희미한광선가운데서 가장고혹적색채를띠우는것입니다。 호수와가티 맑고 넓은눈동자에 푸른수풀과가티 빽[illegible] 만해도 그눈이 얼마나 고흔눈인가는 더무를 필요도 업슬것입니다。

사 막

가도 가도
끗안나는 모래밧
둘러보면 아무것도 업
고 모래뿐 이곳
이것을 사막이라고 하
오。
낙타를 타고 몃날을가
면 나무가 서고 물잇
는곳이 잇소。이것을
『오아시스』라고하는데
이를테면 모래 바다의
조그마한섬이지요。

(글쓴사람 락랑인)

우리차지

어떤경우에 뚱뚱해질까

놀고 잘먹는것도병통

건강한사람이 튼튼하게 몸이 굵어지고살이찌면 그것은 얼마던지 조켓스나 젊을때는 몸이 호리호리하던것이 차차나이가만허저서 중년이되면 몸이뚱뚱해지는사람이 만습니다

그리하야 옷이맛지안흘뿐더러 날세가 조금만따뜻해도 땀을흘리며 숨이가빠지는것은 슬픈일입니다 더욱이것이 여자일때는 여러가지 다른병이 이것으로말미아마 생겨나게되는것입니다。

부인네가 뚱뚱해지는원인을 살펴보면 여학생시대에 학교에서 운동을할때는 몸이호리호리하던것이 가정부인이되고는부터 운동이부족하야 몸이 뚱뚱해지며 영양을 섭취한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거름로보기에는 살이튼튼하게 찐것가트나 실상은 지방질이부터서 근육은 얇다라케되는것입니다。

뚱뚱해지는 중요원인의 하나는 또한『호르몬』의관게가잇습니다。 구실이불순하던지 난소기능(卵巢機能)이나쁘며 자궁이불완전한사람은 대개보기실토록 뚱뚱보가되는것입니다。

젊은사람이라도 뚱뚱한부인은 아이배는수효가 적은것은 이까닭입니다。

사십이너머서 뚱뚱해지는사람은 구실이그칠때가 되여서난소의기능이 나빠진까닭입니다。 따라서 호르몬의관게에따라서 이상하게 뚱뚱해진것은 그원인을 고치지안코는 아무약을써도 소용업습니다

첫재 그것을 예방하는데는 지방질이 싸여잇지안토록 너무기름진고기를 먹지말것이며 푸성귀가튼것을 만히먹는것이 조흡니다 그리고 간식도 해로우며 사탕분도 조치못합니다。 그다음에는 운동을 조곰식하되 가정부인네로서 운동장에 나가랄말슴이아니라 밧갓출입을할때 될수잇는대로 만히거려다니도록하지안호면안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나는 미역、다시마、김가튼것을 만히먹도록 하십시요

맥주한컵에 술입도무성해저

그러나무서운『맥주심장병』

술을 잘먹는 사람들은 한겨울 추운때도 삐루를 쭉쭉드리켜지오만은 아모래도 삐루의 제철은 봄에서 여름까지 그동안일것입니다。

날이 따뜻해져야 유리컵에서 고여오르는 거품이 시원도 해보이고 청신도 해보이는것이니 꼭 이제부터가 삐루당의 천하입니다。

삐루의성분(成分)맥아당(麥芽糖)에다가 담백질(蛋白質)아미노산(酸) 린산염(燐酸鹽)등속으로 그 영양가치(榮養價值)가 상당하답니다。 그러고알콜은 겨우 백분지사밧게 안되야 술로서는 아주 위생에 조흔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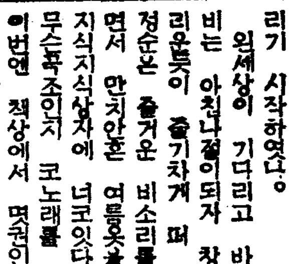
그러나 역시 술은 술이니까 만히 먹을 때는 취하고 또 몸에도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중에도 위확장(胃擴張)이 무섭습니다。

삐루의 본바닥인 독일서는 어린애들에게도 먹인답니다。 아모래도 알콜이 들어 잇는 만큼 그건 조흔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삐루는 한번딸아서 쭉 드리키어 버리는것이 조탑니다。 반쯤 먹고또따르고 반쯤 먹고 또딸아서는 맛도 업습니다。

먹다 남은삐루는 공연히내던지말고 그것으로 유리나 사기그릇을 닥거보십시요。 비누스물이상입니다。 또분에심은 소나무에다가 주어보십시요。 솔이피 아조파라케・고와집니다。

그러나 맥주당에게 경고할것은 맥주를만히먹는분『맥주심장병』이란병에 척정걸리기쉬우니 이점을 생각하야할것입니다。

長篇小說



찔레꽃 (3)

金末峰 作
金熊超 畵

여섯재의여자(三)

어둔날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엿다。

왼세상이 기다리고 바라든이비는 아침나절이되자 창대를드리운듯이 줄기차게 퍼붓는다

정순은 즐거운 비소리를 드르면서 만치안흔 여름옷을 한가지식지식상자에 너코잇다 그는 무슨곡조인지 코노래를 불르며 이번엔 책상에서 몃권인가 책을 끄냇다。

『경옥의 서름』이라는 책이나오자 그는 이책을 가만히가슴에 안아보고 빰도 대여보는것이다 그것은 지난생일 그의생일때민수에게 바든 선물이다

그의 샛별가티 빗나는 두눈이 무슨 꿈을 보는지 즐거운 명상에 잠기고 잇슬때다

안방에서는 정순의 치마허리를달고잇든 어머니가

『칫 저걸어떠케 비가막새는군』

천정한구퉁이가 빨가케 비물이내배사이로 뚝뚝뚝 굵은 비방울이 떠러지는 것이다。

재작년에 집웅을 이은뒤로아직그대로 잇는 정순내 초가집은 썩을때로 썩은 모양이다 어머니는 세수대야를 갓다 물떠러지는곳에 갓다노코 흐르르한 숨을 내쉬며 부어크로 난 창을 확 열어재첫다。

『저런 제길 부어케도 물이하나로군』

어머니는 소매를 둥둥것고서뜰로내려왓다。

부어케서 덕-덕- 물퍼내는소리가 들려오재 정순은 꿈에서 깨듯이 그는 책을 내려노코 벌덕이러섯다。

『어머니 또물이 나서 어떠케해요 네?어머니』

정순도 소매를것고 부어크로 드러가려는 때이다.

바아지로 물을 퍼내는 어머니가 바가를 힐끗보더니

『아유 웃중에 온 저러케 신발을 버리고』

정순은 바른자기뒤에 싱글벙글웃고서잇는 청년을볼때 그는 놀라움과 반가움을 어떠케 표현해야 조흘지 모르는 모양으로 그저 잠자코 한편으로 도라서 버렷다。

살그머니 거덧든 소매를 내리면서

『올라가서요 온다 젓습니다』

『반가운 비에 옷좀저주면 어떠라구요』

하면서도 정순이 권하는데로 [illegible] 이청년은 경대수리과 삼학년에 재학중인 지민수다。

기둥에다 한팔을 집고 저진구두를 벗는 그억세게 버려진 두어깨를 물끄럼이 바라보든 정순은

『인내서요 내벗겨 드릴게요』

하고 마루에 꿀어안저 청년의 구두를 벗기려 한다

『고만두서요 건 안됩니다 안되요』

『괜찬다니까 그러시네 인내요 내 벗겨드린다니까』

『안되요 안되!』

민수라는 청년은 구두를 안벗기우랴고 마루끄테서 경중경중 이리뛰고 저리뛴다。

『호호호 호호호』

정순은 자지라지게 우스며

『아이 고집도』

한마디하고 방으로 드러와 버렷다。

민수는 붉으래해진 넓은 이마에 솟은 가는땀방울을 손바닥으로 씻스며

『내, 저신이 첨부터 좀 적은것을 신엇더니 저러케 성화를 시킨니까, 아주여행할지말지하오하고 방으로 드러오더니 오-또한 이건 정말여행입니다그려』

어수선하게 옷이니 책이니 느러노흔 방안을보고 민수는 짐짓 그보기조케 쌍까풀진 눈을 휘둥거려케 뜨는 것이다。

『그럼 어저녁 말슴은 아주 터문이 업는 거짓말로 드르섯나바』

정순은 눈을 흘기는 시늉을해보이고 고개를 살작돌려 버렷다

『아니 천만에 그런건 아니지만…… 좌우간』

『좌우간』

정순은 민수의 말끄틀 바더서

『좌우간 미워하시는 저꼴도인제 아주 안보셔도 조케되섯스니 축하합니다』

하고 빵도라서서 방금 굵은비줄기를 고마운 채직처럼맛고누어잇는 백일홍을 내다보는 것이다

민수는 정순의 뒤로가서 두팔로 그의 동그란 어깨를 안으며

『그런데 가시는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며 또, 그집안 공기가 어떠한지 대강 알아보섯나요?』

『네 그것은 오부인이 쥐다 알어요 그리고 어제 주인마누라를 보앗는데 퍽상냥스럽드라고 어쨋녀에도 말슴햇는데……』

『글세요 그러브르조아 가정이란 의외에 박그로 보는것과는 아조딴판으로 복순한점이 잇스니깐요……』

『괜찬허요 직업전선에 나온이상 그만한 모험쯤이야 미리 각오해도 조치안읍니까?』

정순의 명랑하고 자신잇는 얼굴비출 건너다보고잇는 민수는 그이상 더 추궁할수가업섯다。

그러나 그의맘은 어린양(羊)을 이리무리속에 디려보내는 목자(牧者)와가티 가슴한구석이 어두어 지는 것을 어찌할수 업는것이다。

『그럼 부대만사에 조심하시요 네? 물론 정순씨는 총명하니까』

민수는 두손바닥으로 정순의 얼굴을 싸고 그리고 그의뺨에입을 마추엇다。

정순은 참숫불처럼 달아진얼굴을 밧쫌들고

『이여름동안 대에가시지안코 늘 서울게시기로 하섯다죠?』

하고 눈을떠러드렷다。

『네 참고서를 좀 읽을것이잇서서 도서관엘 다니기로 햇습니다』

『그럼 일요일마다 나오리다 네?』

정순은 민수의가슴에 얼굴을 파무덧다 민수는 또한번 정순의 어깨를 힘잇게 안고

『편지 자주보내서요』

『당신도 네?』

두사람의 손과손은 굿게 잡혓다。

殺菌作用の強い
新原料の威力
專賣特許
クロール・カルバクロール
及ヨードチモールを配合

구라부齒磨는 殺菌劑로서 優秀한性能을가진 專賣特許의 구로-루・가루바구로-루及 요-도치모-루를 配合한最新最良의藥用齒磨이다

이러한殺菌劑는 모도가數千倍나加한液으로무서운黴菌을 死滅식히는 强力한것이다 그림으로 구라부齒磨를 使用하면 虫齒의 原因이되는 黴菌을업새고 다시特殊한美白原料의配合으로서 齒牙를곱게한다 또한 清新한맛이잇슴으로 齒牙를 닥근後에는 爽快한맛이잇다

ムシ歯を防ぐ

殺菌力が強くて副作用がない

구라부齒磨는 專賣特許의殺菌劑구로-루・가루바구로-루及요-도치모-루를配合한優秀한 科學的齒磨이다

모두가殺菌劑로서는 最新最良한것이니 虫齒의原因이되는 무서운黴菌을死滅식히며 아모러한副作用이업다 朝夕으로반드시 구라부齒磨를使用하시면은 虫齒를防止하고 齒牙를곱게해준다

清掃と美白作用が優秀な齒磨

구라부齒磨를 使用하면은 强한殺菌劑作用으로虫齒를 防止할뿐아니라 다시 美白原料의配合에依하야 곱고흰齒牙를 만드러준다 또殺菌力이强한고로 淸掃作用을하는 同時에不愉快한 口臭도업새준다 또한 구라부齒磨는味香이淸爽하니 오늘부터 구라부齒磨를使用하야健康하고 고흔齒牙를만듭시다

クラブ煉齒磨……一二セン
一五セン・二五セン
三〇セン・四六セン
クラブ半煉齒磨……一六セン

藥用 クラブ齒磨
구 라 부

新哲學의 指導原理
—辯證法的 世界의 彼岸—
③ 金基錫

存在가 存在의『무어이것』임에 反하야 이性格 또는 限定은정히 存在의『무어이엄』이 됩니다 이러매로『무어이잇다』의 學的 反省은 아래와가튼것이 아니겟습니까.『무어이잇다』는 본대『무어이것』이 무어이엄에 잇서서잇다가 되어야하고 다시 나아가『무어이것』이 무어이엄에 잇서서 부단히

時間속에서 움속이고 이잇다』가 되어야하고。이것은『무어이것』과 구별되는『무어이엄』이란 무어이겟습니까。이것은 存在에대한 우리들의觀念 또는 存在自身의 久遠한彼岸가튼것이 되야서는 안됩니다。오히려『무어이것』과 함께 가장現實的인또 客觀的인 意味를 가진다고 보지안허서는 안됩니다。

나는 이『무어이엄』을『플라톤』의『이데아』나『하이데겔』의『存在의根據』가튼것으로는 생각하지안습니다。

存在는 본대 時間的存在인가。그러타。時間的存在는 본대『무어인것』으로서의 時間的存在인가。그러고 이 現實存在로서의『무어이것』은 본대『무어이엄』에 잇서서의『무어이것』인가。그러타。말하자면 存在로서의『무어이것』의 속에는 언제나 性格으로서의『무어이엄』이 들어잇다는말인가。그러타。그러면 어떤 存在가업서질때 그대의 말을옴겨 그대의이른바『무어이엄』은 어떠케되는가。그대의 論法대로하면 이『무어이엄』이란 본대存在가아니매 存在가업서진뒤에도 남어잇서야하지안나。자、『것』과 혜여저서남어잇는 이

神秘스러운『엄』을 잡어와 그것을 봇잡어다가 우리들의 아페내여노하。

—이러케대여들을분도 게시겟습니다。그러나 잠간만 기다리서요。우리들이 아페서 存在를『무어이것』이라고보앗고、이『무어인것』이『무어이엄』에잇서서의『무어이것』이라고 하지안헛습니까。우리들이 存在나運動의根本現實을 기피 省察한다고하면、『것』이 따로잇고『엄』이 따로 잇서서 이들이 마치 水素와酸素모양으로 어떤存在를 만들고 그속에깃드린다고 보게되겟습니까.『것』은 본대『엄』에잇서서의『것』이요『엄』은 처음으로『것』에잇어서의『엄』입니다。어떤 存在가업서질때 그 存在의『무엇이엄』이 어떠케 되는냐고 무르시렵니까。무엇이 업서진다는것은 단순히 무엇이업서진다고 볼것이아니고、무엇인것이 무엇인엄에잇서서 자기를직히고주장하다가 그것을마침내中斷또는拋棄하는것을이롬입니다。그러기에 무엇이업서진다는것은 무엇인것이무엇인엄을그치는것이니、어떤存在가업서지면서 따로그存在의『무어이엄』이남을길이 업지안습니까。우리들은 자기도모르는사이에 運動의論理로부터 限定의論理에 옴겨왓습니다。이運動을 存在에잇서서의 運動으로規定하고 存在와運動을 그

具體的인 性格에잇서 理解하기를 가르치는 限定의論理야말로 實在또는現實이 거기에잇서서 자기를構成시키는 根本原理가아니겟습니까。

모두가움속인다。움속이는것만이 가장眞實한것이된다。움속이지안는久遠한眞理란것이어데잇는가。이러케물을때 우리들은 그것이 存在의世界에대한한개의가장現實的見解인줄을압니다。存在치고움속이지안는것이잇겟습니까。時間을버서나서 그자신을久遠히직히는것이 잇겟습니까。存在는본대 運動에잇서서의 存在입니다。이러매로 世界는 원이그자신 한개의 久遠한流動久遠한轉變이됩니다。왜『모두는轉變이다』라는말이잇지안습니까。이제 우리들은 이것을『모두는運動이다』『모두는生成이다』라는言表로 바꾸어 봅니다。

過去의 思索하는이들이 얼마나만히 久遠한實在를 차젓습니까。움속이는것을 단순한假像이라고하야 물리치고 그속에어떤 움속이지안는 實體가잇서야한다고들하지안햇습니까。이것은 분명히 實在밋그世界에대한 理解에잇서서

過去의偉大한眞理가 지금에는 眞理가아닐수잇습니다。우리들은 모두가움속이고 바꾸어간다는것을 現代의『運動의論理』로부터 嚴肅하게 배우지안허서는안됩니다。

그런데 모두가움속인다고할때 이모두가 움속이고잇는 事實그自體는 어떤것이겟습니까。또 가령 久遠한眞理란업다고할때 이 久遠한 眞理가업다는見解 그自體는 어떤것이겟습니까。『모두는움속인다』『久遠한 眞理란업다』。이것은 現代의思惟가 그것을眞理로 올어보는 가장빗나는 命題입니다。이모두가 움속이고 잇는 事實 그自體는 본대 움속이지안허야 하지안습니까。이久遠한眞理가 업다는見解 그自體는 실상 久遠한것이되어야하지안습니까。

모두가움속인다。그런데 이모두가움속인다는 事實만은움속이서는안된다。모두가움속이면서도 움속이는일自體는 움속이는것이 아니라고하면 이『모두』는어떤『모두』겟습니까。적어도 가장根源的인事實하나는 빼여노흔『모두』가아니겟습니까 하나를빼여노핫스니 그것은 벌서진실한意味의『모두』가아니겟습니다。久遠한眞理란업다。眞理란 그자신한개의生成이되어야한다。이러케말할때 이

基本見解그自體는 분명히 한개의 뚜렷한眞理입니다。이제 이『久遠한眞理란업다』니라고 가르치는것이 그자신가장根源的인 眞理가 되어야하는 한에서 눈아페久遠한 眞理의構成을보면서 세상에 久遠한眞理가업다고하는것은 어떠케하는말이겟습니까。나하나만이 久遠한眞理이고 너희들은 다久遠한眞理가 아니니라고 가르친다고하면 이偏善的인眞理는 벌서 자기를 眞理로서 主張할 現實的根據를 일허버리고맙니다。

漢詩

題 新春　押 春　桐岡 考選

佳作一之六　大邱府南山町六五六 孝山 許善

久客南州歲又新。物華偏感白頭人。郢歌唱雪寒猶在。鄒律吹灰暖自臻。歡後昆虫皆意思。燒餘原草更精神。故山春信憑誰問。窓外梅花入夢頻。

裕貞哀詞
安懷南

裕貞아 너는 三十도 채 무살고 갓구나。나는 悲嶽에못고그냥 기맥힌다。인제는 네 얼굴 다시못보고 음이을 볼러도 너의對答을 들을길 가망이 업구나。아득하야 무엇을 말할수도 업다。네가 그저잇스면 病床에누운 너의 蒼顔을 업사안고 結婚으로 僞한 너의입술에 멧번이든지 입마추련다。

삶에 대하야 그러케 敢虔하고 아름다운 情熱을바치든 네가 그래 그러케도 虛妄하게 꺼져 버릴수가잇드란말이냐。눈을 감고서 지내날 너의 모든일을 삿삿치 뒤푸리하면 할수록 人生이란 정말無常하기 水泡와가터 나는 견딜수업다。너는 참 不幸하엿고 너를 생각하는나는 너머도 슬프다。

裕貞아 그러나 네自身의 사람됨은 퍽 高潔하엿다。내가 이世上에서 第一 볼상이 역이는 사람도 너이고 가장 尊敬하는 人物도 너다。淡淡素然하야 오직淸明하고 恰似氷壺에 秋月한 高潔와기럿는 너의 格이여。나는 언제 든지 네아페 머리를 숙이여 讚頌하고 시픈 마음뿐이다。

그리고 또 너는 眞實한 意味에 잇서서의 天才엿다。우리文壇에 일찌이 너와가티 纖細하게 出現한作家가 엇섯고 너와가티 鄕土를안에 情熱을 모이게한 文人이 잇지 못햇다。鄕土에차어잇스면서도 新鮮한 魅力을가진 文章 朝鮮의 獨特한 民俗을 고대로 表現하야 새로운 境地를 開拓하여간 作品 萬篇도 너의나라것가 살아저 감은 正히 藝術的이엇다。

裕貞아 人格으로나 才能으로나 나는 너의발에도미치지 못한다。그러나 나는 아프로 혼자서 이世上을 살때 너를 相常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所禱하는 心情으로 지내련다。내 理解하는 동무로서 너의 마음더운 원갓것을 나와 가슴속에 秘藏하여 두고 내 誠心것는 記者로서 너의 남기고간 모든 業績을 나의 손으로 整하여주마。

네가 떠나가 버리고 만 텅비인자리를 다시 빈처럼 채워노흘만한 사람은 업서 너는 果然 우리의 永遠히 일허버린 寶物이로되 너의 高潔한 個性은 인제 온天下에 빗날것이고 너의노픈 價値는 世世토록 전하여질것이다。肉體는 흙속에무처잇서도 너의靈魂만은 永久히 썩지안코 우리에게잇다。

裕貞아 술든裕貞아 가엽슨裕貞아 오늘도 雲白山背하고 川行石立하여 世上은 依然한데 너는 어데로 가고업느냐 現實의 모든것은 아무일도 업는것가트것만나、의마음은 自慶自責하야 안타까울기 어따 이를데가 업구나 인재서로 相逢하는날이 잇다면 그것은 으로지 他界에서의 일이려니와 지금 너의얼골과모양을 마음으로는 그리고 눈으로 보지못하는것이 당장참을수업다。

아아 나는 생각하고는그냥 기맥힐뿐이다。(了)

봄의 嘆息
三 徐光霽

K君은 내가 돈二十圓잇다는바람에 별안간에 기운이 나서 電話室로가서 用達社에 電話를걸고 멧센저―뽀이를불럿다

한十分後에 멧센저―뽀이가 왓다 K君은 片紙한장을 써주며 ××町××番地에갓다주고 回答을바더오라고하엿다

그片紙가 무어이냐 물으든이 自己와요사이 조와하는女性이잇는데 軍資金이업서서四五日재 못만낫다고하며 얼굴은 絶世美人이며 普通때가트면危險해서 나에게紹介를 아니하여주라고하엿는데 戀愛軍資金까지 내주는 씸파에게인사쉼이야 안시켜줄수잇는가하고 意氣衝天하야 비둘기가티 날려드리렴을 自己의愛人을 기다리고잇섯다

나는 K君의愛人이든 누구든 女性과 이약이조차 못한지가 數週日이라 寫眞에서 美人을도 보는데 實物의 美人을보는 快感이야 못가질것이냐하여튼 그未知의女性이 오기만 기다리고잇섯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할말이지만 春情과憂鬱은 오직男性에게만 잇슬뿐이요 女性에게는 絶好의 씨즌인것을 K君은 아지못햇나

웨그러냐하면 그未知의 女性 即K君의愛人은 片紙를보낸지 두시간이넘도록 E茶房에 얼굴이 나타나지안햇나

두시간동안에 K君과 내가 핀 담배가 두갑이다 혀가갈러젓는지 입안이깔깔하여 너무 오래안젓스니 未安해서가끔 茶한잔식 식힌것이 이茶저茶 섞거서 녀잔식 먹엇스니 三十分에 한잔식 마신셈이다。

봉어와 다른 生活이 뭐냐 하로 온종일 물만마시고잇섯스니!!

나의失望보다는 K君의失望의비는 참으로 아까 R君의絶望의顏色보다 더悲痛하엿다 나를 만나기前에 두시간이란 짧지안흔 時間을 茶한잔을노코 눈만 깜벅깜벅하고 안젓섯고 나를만나가지고 男氣를보어더 自己의愛人에게 片紙를보내고 또다시두시간동안을 기다리는동안에 오늘하로를 愛人과가치 재미잇게놀푸로그랄도 꿈엿슬것이다 그러나 그空中樓閣이 餘地업시깨여질때 그의失望과 憂鬱는絶望의過程을지나 캄캄한 글속으로 떠러젓다 그때 그에게 여페서 누가 눈이라도 흘겨보앗드라면 곳 싸윗슬것이며 누가失戀의쓰라림을 하소연하엿드라면 그는 우럿슬것이다

"여보게 두時間이나 기다려도 君의愛人은아니오니 아마 오늘 어디 존데를잇나봐이……해도지고햇스니 술이나먹으러나가세!"

내가 술을먹으러나가자는것은 오늘의내몸으로써는 最大의犧牲이다 病이完快되기前에 술을먹는다는것은 오늘날까지 攝生한努力을 全部抛棄하는것이다 그러나 나의肉體的인조그만한苦痛보다는 K君의 오늘의精神的苦惱가 더人間生活의 重大價値가 잇슴으로 서슴지안코 술먹으러가자고하엿다。

K君은 내손을잡고

『도업는 놈은 日曜日이 더 憂鬱해 오늘술먹어다가는 우릅이 터저나올는지 모르는데 누구를부등켜안고 우나 집에가서 이불이나 쓰고자겟네!』

K君은 휘가버렷다。果然! 君은 自己집으로갓는지 그러치안흐면 愛人의 집으로 갓는지는모르나 四五日동안이나 戀愛軍資金이업서 만나보고시픈것을 못만난사람이 오늘저녁이라고 갓슬 理致는업다。그리고 집에가서 이불을쓰고 곳 자겟다는 그가 밤 길도록 잠이 안드럿슬것도 事實이다

나는 都心地帶에 나온것이 곳後悔낫다 왜 이봄을 마지하지안켓다는 그決心을 직히지못하고 번연히 봄이면 男子는 더窮해비고 女子는 더 華麗해비는 그自然的 悲劇에 휩쓸려드러가려나!

하여튼 배속에서는 飢餓의鐘을 울리니 食堂에가서 저녁밥을 사먹고 집으로 그냥 드러갈라고 電車에 올랏다

學生作品
이봄의祈願(二)
世專 李昌植

그러나 아무리 외이고 또외이여도 마음에 아무런 人生의꿈도 希望도 感激도 明滅하지는안헛다。한줄기두줄기 되여오른 봄의情調에 가늘게떨고잇던 感情의줄마저 마침내 떨기를멈추고 마음은 또다시 어둡고蕭條한 벌판을 헤메고잇섯스니 아마도 나는 永遠히 봄을 등젓는가시퍼。마음의벌판은北極의氷原처럼 굿게굿게 어러부튼채 아무리두드려도 열리지를 안흐려는듯。내感情는 영영封鎖를當햇슴인가 서리맛은풋입처럼 시드러버렷슴인가? 바위처럼 느낄줄모르고 비단결가티 고흔情緖를 빼앗기기에는 그리고 이봄과더부러 꿈을키우기에는 젊은이가 되기에는 아직도 내나이 너무도 어리고 아직도 뚜렷한 靑春의所有權이 너무도 아깝지안흔가? 꿈을 일허버린 젊은이! 노래를 일허버린 카나리아! 나는너무도 조혼對照라고 생각하며 멧번이나 이것을 마음속으로집어보앗다。

생각만해도 무서운일이다。산송장처럼 몸서리나는일이다。그러기에 젊은이는 맛당히 꿈을 가저야한다。꿈을 나흘수잇는豐富한 感情生活을 가저야한다。꿈을 꿀수잇는것은 젊은이만이 가지는 特權이요 生命이 아닐가? 꿈이 제아무리 架空的妄想이되고 虛荒된것가 되는한이잇드라도 그리고 쓸대업는 꿈을 가진다는것은 한솟의 價値업는 센티멘탈리즘以外에 아무것도아니라고 批難밧는한이 잇드라도 꿈은 꿈인한에서 아름다운것이요 꿈이 잇슴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生活은 기름지고 豐富해지고 潤澤해지는것이 아닌가? 우리의生活속에서 꿈을 빼앗긴다면 그後에남는것은 오직 모래알을 씹는것가튼 바삭바삭한 生活의荒凉함박게 더잇슬것이 무어인가 예로부터 詩人墨客이 봄五月을 노래하여 希望의봄、生의봄、靑春의봄이라고 讚頌의言辭를 아끼지안는것도 亦是오는봄이 人間의生活우에 百花爛漫한 希望과 꿈의 花壇을 주는때문이 아니엿슬가?

그러타! 봄은 꿈과希望을실어오고生命의躍動을 가저온다。이봄도亦是 그것을 싯고오는것을拒否하고잇지는 안흘것이다。그러기에 이봄이 이땅에 미처 오기도전에 벌서 수단흔 사람들이 오는봄을 讚美하지안헛든가?

―이러케 生動하니 유독 나만이 이봄의 恩寵을 밧지못하는것가타서 못어시 슬펏다。이봄과가티 約束된 아무런 꿈도 希望도 憧憬도 못가진 내自身의 너무도 초라한 그를이 측은하게 느껴졋다。그리고 大地에 넘처흐르는 봄의 香氣를 마음먹서도 봄잇안고 神秘에 가득찬 꿈의 수롤속으로 헤매지도 못하고 세차게 흐르는 濁流와가티 奔放하게 달리는 感情의 흐름도 업는 앙상한 내모양이 悶悶하고십도록 눈물겨웟다。

春來不似春이란 나를두고 일럿음인가? 그러나 나는 아직도 내가 젊엇다는意識을 내머리속에 파내고십지는 안타。그리고 꿈을일허버린 젊은이라는 烙印을 바더가지고 젊은이의圈內에서 追放되고시픈생각은 터더구나 업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 强烈한 꿈의憧憬에 내오몸이 새빨가케 불타고잇슴을 안는가? 참으로 내가 언제 이러케도 간절하게 꿈과希望을 憧憬해본적이 잇섯스며 豐富한感情生活을 할수잇는 敏感한 藝術的感性을 이러케도 목마르게 希求해본적이 잇섯든가?

아!그리운꿈이다。갓고시픈感情이다。너무만혼 꿈을 가짐으로서 現實과 妥協할수업는 온갓悲劇을 내몸우에 비저내고 내몸이 갈기갈기 찟기는한이잇드라도、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敏感한 藝術的感受性을 가짐으로서 忠實한 感情의奴僕밧게더 될것이 업다고하더라도 나는또 한번 燦爛한 꿈외울리속에서 살고싶고 感情의푸른한율를 放浪하는 한개의 보헤미안이 되고십다 그리하야 말라빠진 내生活우에 시드러가는 내靑春우에 또한번아름다운 人生을 彫刻하며 무르익은 생노랄저럼情熱속에불타는 彈力잇는 生活을 하고십다。

이것이 이봄에대한 나의 最大의念願이요 唯一의憧憬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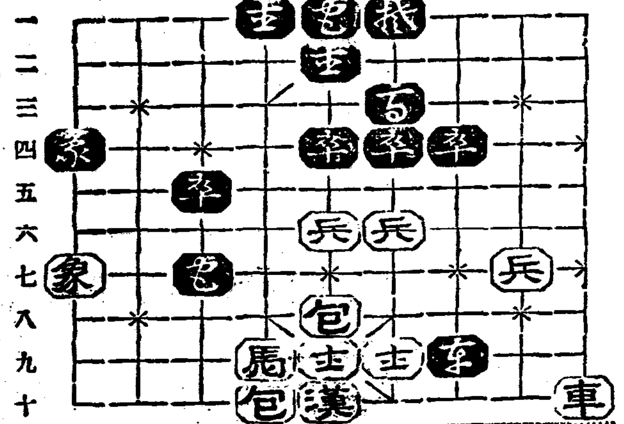
오는봄아!꿈을 한아름 실어다주지는 안흐려는가?꿈을 한아름 실어다주지는 안흐려는가?

―꿈업는 그리움에 불타는 눈동자로 虛空의 한點을 노려보며 나는 이러케 이봄의 祈願을 정성것 올렷다。靜寂에파무친 山골자기속에 그리고 블타는 내마음속에 그祈願의 餘韻만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안코 가느다란波紋을 그리며 흐르고잇섯다。해가 누엿누엿 西쪽하늘에 기우러지고 마을의굴뚝에서 저녁연기가 한줄기두줄기 여오를때까지도……그리고 저물어가는봄하늘에서 구슬프게 맴돌고잇는어미찻는 송아지소래를 들으면서 언덕길을 내려올때까지도……(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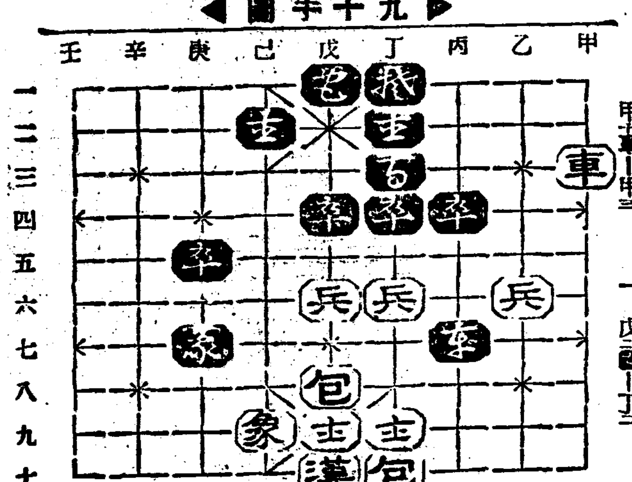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九)

先手 李在鳳 對 全才石

◀圖手十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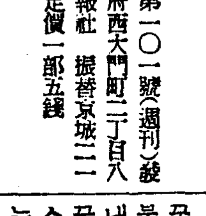
◀圖手十九▶



己九馬―庚七(打包)　壬八包―庚八(呼將)　壬七兵―己九　丙九卒―丙五　甲十車―甲三

己四卒―己三　乙五兵―乙六　丙五卒―丙七　己四包―丁十　戊二卒―丁二

紙上顧問



【問】本人은 山村民으로 法律智識이 업서 失敗點이 多有하니 民法、刑法、警察法에 對한書籍販賣店住所를 下敎하여주시요 山村民 上書

【答】京城府堅志町漢城圖書株式會社로問議하시오(係)

【問】朝鮮內에서 조선말로發行되는月刊映畵雜誌와 그림雜誌와風俗그림冊의發賣所와 定價를알려주십시요

또에쓰페란트語로 朝鮮서發行되는月刊雜誌가잇습니까? 全南寶城 ISO生

【答】映畵雜誌는 正常的으로나오는것이 업습니다 그림雜誌나風俗그림冊도업습니다 에쓰페란트雜誌도업습니다。(係)

【問】小生이자세히알수업기로貴社에 뭇사오니 지상고문란으로 下敎하시지요。朝鮮內에서 鐵道員養成하는學校를下敎하시옵소서 平北K生

【答】鐵道局으로 問議하시오 (係)

【問】저는今般本地方中等校三年을修業하고 東京으로가기로 決定하엿는대 一、私立中學校에編入하라면試驗을처야합닛가 二、또東京서朝鮮生徒가만히通學하는中等校멧가지와 三、東京市內中等校案內書는업습니가 잇스면 그發行住所價格을가리처주시면 多謝하겟습니다 安東吾播生

【答】編入試驗을처야합니다 그러나 試驗程度는 朝鮮內에서 보는것보담은 좀엇습니다 朝鮮學生이만히다니는學校는 별로업스나 順天中學 大成中學 目白中學가튼것이 잇습니다 東京市內中學案內書는업습니다 (係)

【問】新聞紙上 人事消息欄에흔히씨우는 內艱、或은外艱이란熟語는 무엇을意味합니까 (春香生)

【答】內艱은 母親喪이고 外艱은 父親喪입니다。(係)

【問】寫眞技術에대한 參考書를살려고하는대 住所와갑을下敎하여주시요 李文字

【答】京城本町 丸善으로問議하야보시지요 (係)

【問】小生은 今般十九歲의未婚男子이올시다 十七歲時洋服店에드러가서 滿二年首見習을하와至今은 大部分을 하게되여洋服店을 經營할作定인데 裁斷을못하와 經營할수업서 裁斷을見習할作定이온대 未安하오나 여러先生님들 京城府內에 洋服裁斷學院이든 講習所를아시면 좀가르처주시기를 바라나이다 新聞紙上에올으면조켓습니다 朝鮮日報를 바다보니 알수잇습니다 慶州 朴昌烈

【答】京城에는 裁斷學校가업습니다 或長谷川町 YMCA에서 講習會를 엿나는말을 드럿는데 그곳으로 照會해보시요 (係)

【問】이곳잇는小學生敎授가 目的이오니 改正綴字法에依한 한글初步敎授及獨學用에 適當한書籍名과 複習이必要한 少年한글雜誌數種及定價 發行所를詳細敎示하시옵소서 神戶市林田區細樂町一丁目四三 李運

【答】崔鉉培著『우리말본』(定價七圓)—延禧專門學校出版部파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少年』(定價十錢)이잇습니다。(係)

【問】讀賣報見紙問欄에以仰問生 東洋畵研究者也於山水花卉毛翎等色調未知方法或有諸法書籍耶否若有書冊店名價格下示如何 東洋畵研究生

【答】市內中學町二〇 朝鮮美術院으로問議하시오 (係)

【問】京城에가서 自動車學校에 入學코저하는데 免許獲得까지實任敎授하는校名과 住所를下敎하여주시요 北鮮一愛讀者

【答】京城府太平通南大門自動車學校로問議하십시요 (係)

◀白光 第三、四合號(內容)頌春詩輯號 張德秀論 陽春雜筆回想의봄 外散篇、文人들에레스트―李箕永外諸氏 崔承喜女史訪問記 創作席謙―新人探求論 崔承喜의後繼者金敏子嬢과의一問一答 詩歌創作 生命外二篇 其他 發行所 平壤府酶九里一二二 白光社 振替京城一六三五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基督敎報 第一〇一號(週刊)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今年度 市內各中等學校入學試問題 ⑫

(普成高普)

一、次ノ文ヲワカリヤスク解釋シナサイ。

(イ) 涙ながらに語る宗眞の打明話を聞いて、嘉兵衞はいたく窮狀に同情し、百方奔走の末、遂におのが家産を傾け盡くして彼の急を救つてやつた

(ロ) 見渡す限り果もない原野に放牧の馬や牛が悠々と草をはむ樣や、綠草の間に羊の群をなして遊ぶ樣は、實にのどかである。

二、次ノ語句ニ適當ナ讀ミ假名ヲツケナサイ。

(1)曲折 (2)武威 (3)蹤跡 (4)感激 (5)眞夏 (6)石燈籠 (7)刺通す (8)今曉 (9)花瓣 (10)行方

國語科(第二日)

一、次ノ文ヲワカリヤスク解釋シナサイ

(イ) 涙ながらに語る宗眞の打明話を聞いて、嘉兵衞はいたく窮狀に同情し、百方奔走の末、遂におのが家屋を傾け盡くして彼の急を救つてやつた。

(ロ) 見渡す限り果もない野原に放牧の馬や牛が悠々と草をはむ樣や、綠草の間に羊の群をなして遊ぶ樣は、實にのどかである

二、次ノ語句ニ適當ナ讀ミ假名ヲツケナサイ。

(1)曲折 (2)武威 (3)蹤跡 (4)感激 (5)眞夏 (6)石燈籠 (7)刺通す (8)今曉 (9)花瓣 (10)行方

三、(イ)次ノ文ノ誤ツテキル方ヲ消シナサイ

さうして『國字四書』と名づけ(で/て)朝夕おしいただいて(で/て)、厚く母の恩を謝した(だ/た)といふことである。

(ロ)左ノ文中誤ツテキル所ガアツタラ――線ヲ引イテソノ右側ニ直シナサイ。

それを讀んでゐる中に覺えず涙がにじんで來だ。

四、左ノ文ノ片假名ノ下ニ漢字ヲ入レナサイ。

(イ)アンシンダイ( )を過ぎれば、急坂はゼツペキ( )と變じて高くスジョウ( )に迫るチツサク( )に身をタク( )してよぢ上ることしばし、やがて金剛門といふ石門の前に出た

(ロ)國民が『ヤマトゴコロ( )の前には出來ない事はない。』とのシンネン( )をもつて進んだならばコクウン( )のリュショウ( )はキ( )してまつことが出來ます。

五、次ノ語句ヲ用ヒテ短文ヲ作リナサイ。

(1)僅か=
(2)血湧き肉躍る=
(3)[illegible]=
(4)折にふれ=
(5)[illegible]=

(以上六十分)

(養正高普)

國語科

一、左の文中括弧の部分だけの意味をその右側に書きなさい。

身には(1)(色目も見えぬ)破れ衣をまとひ、日にやけ(2)(仕事にやつれて)(3)(年頃もよくわからぬ)くらゐであるが、きつと結んだ口もとには(4)(意志の强さ)が現はれてゐる。

二、左の文中の漢字に假名をつけなさい。

宣長は眞淵の志をうけつぎ、三十五年の間、努力に努力を續けて、つひに古事記の研究を大成した。

三、左の文中の片假名に當る漢字をその右側にきなさい。

イ、見渡す限り果もない(ゲンヤ)に、(ヘウボク)の馬や牛が(ユウウユ)と草をはむ樣や綠草の間に羊の(ムレ)をなして遊ぶ樣はジツにのどかである。

ロ、(ラウゴ)は(モツパ)ら力を(ケウイク)と(チョジュツ)とに(モチ)ひたり。

四、左の語をつかつて短文を一つづつ、作くりなさい。

イ、かねて
ロ、徒に
ハ、何氣なく
ホ、すごすごと

一、左の文中括弧の部分だけの意味をその右側に書きなさい。

イ、(なぎさの松)に吹く風を(いみじき聲)と我は聞く。

ロ、[illegible]の深大なる讚仰心と、あくまで初一念を(ひるがへさざる熱心)とは廣く人人を(感動せしめしにや、)進んで寄附するもの意外に多く此の度は製版、印刷の業(着着として進みたり。)

二、左の文中の使ひ方に誤があつたら、なほしてその右側にかきなさい。

法律を制定するには、征府又は貴衆兩院の何れかが其の案を作成して議會に提出する。

三、左の文中括弧のある漢字の右側に讀假名をつけなさい。

(次第)にやせ(衰)へて、物にすがられければ立てない(程)になつた時、釋迦はいくら(苦行)をしても(更)に効のないことを知つた。そこで先づ近くの河に浴し村の(少女)の(捧)げる(牛乳)を飲んで(元氣)を(回復)した。

四、左の語をつかつて短文を一づつ作りなさ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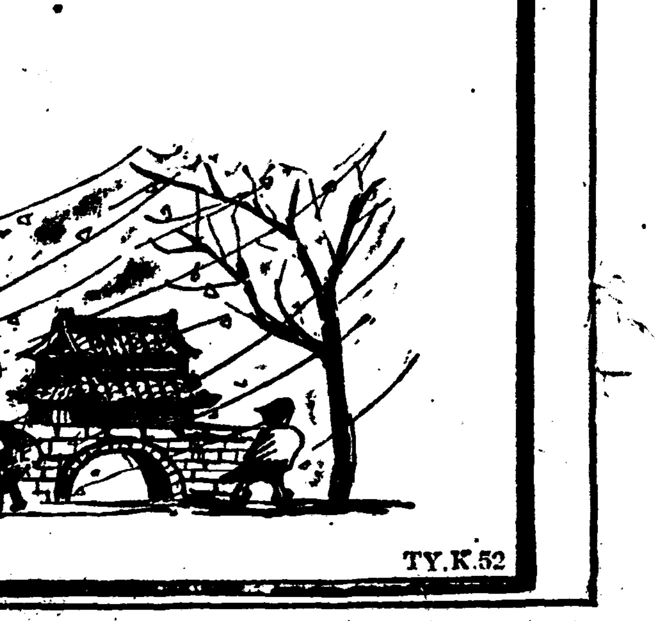
イ、極めて
ロ、恐く
ハ、僅かに
ニ、ひつきやう

기침에 잘듯고 먹기좋은약

감기에걸니면……

고통이 심한 기침이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목파 기관의 粘液腺이 맥히거나 말느는 쌔문에 그럿케 기침이 나오게 되나니 이런쌔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痰을 속히나오게하여야됨니다。

더구나 기침을그대로 두시면 重한병을일으키기 쉬우니 속히 곳처야됨니다 이런쌔에 지밋신을 服用하시면 곳낫게되나니 지밋신은 氣道의分泌을 조케하고 自然的으로咽喉를축々하게하야 그곳에 붓덧든담을곳나오게하고 기침을곳개이게합니다。



백일해……

백일해와 홍역기침의특효약으로 유명한 지밋신은 먼저 그심한 기침파가래를가란치고 속히병을다스려줌니다。

백일해는 일홍과갓치 오래쇠러서 어린애들의게 말못할고통을주나 지밋신을미련에사용하시면 예방이되고 진행중에사용하시면 심한발작을다스리며 구토와 쇠약과 무서운예병을방지하고 속히 낫게만들어줌니다。

밧튼기침·천식

치운바람이 부는요새에는 몹시 밧튼기침파 천식이 심한쌔이오나 지밋신은 조선사람의 체질에 꼭맛는만큼 부작용의염녀업시 잘들어서 밤잠을 잘주무시게 만들어줌니다 또한 이병이 승하야 무서운 호흡기병으로되는 것드예방하야주며 다스려줌니다。

어느家庭에도 하병식준비하시사 기침이나거든…… 한숙갈…… 주무실쌔에…… 한숙갈식……

사용하시면 잠을잘자게되고 자는동안에 병증세의악화를방지하고 쾌를빨으게하여줌니다

五〇瓦…四十錢
一五〇瓦…一圓
三〇〇瓦…一圓八十錢

各道藥房에서販賣함

チミツシン
지 밋 신

TY.K.52

루이스·레이너

映畵同好會主催 名畵鑑賞大會

四月三·四兩日府民館에서 本報讀者는特別優待

映畵同好會主催로 四月三日四日兩日間府民館에서 名畵鑑賞會를 開催하기로되엿는데 上演映畵는 A C I映畵社作品"面影"과 P C L映畵"處女花園" 두개다 面影은 伊太利映畵로서 바르타·엣겔드와 산도파르에리主演 카르내네자로-네 監督作品이다 이名畵鑑賞會에서는 特히 本報讀者를 優待하기로 되엿는데 入場料三十錢을 二十錢으로 割引하게되엿다 더욱 當日入場은午後七時부터밤十時까지續映하되讀者優待券은欄外에드러잇다。

데氏作"요시하라" 映畵化에問題

山田映畵의 權威者 팡크博士가 日本에서 製作한「새로운땅」을 契機로 日本映畵의 世界進出은 여러方面에 注目을 끌고잇는차 映畵人으로서「새로운땅」에主演한 原節子와 早川雪洲等은 各各 歐洲方面에 世界的映畵人으로 進出하게되여 去年十二月에 早川雪洲는 佛蘭西의록쓰·필모社에서 윌나-의 百萬長者女優 田中路子와 함께 佛蘭西流行作家데고부라氏의 原作인『요시하라』에 主演하게되엿다。

이映畵의內容은 作家데고부라氏가年前東京에와서『요시하라』를보고 쓴作品인데 公娼所在地를題目으로하야 日本의 風俗을드러낸것은 재미롭지못한것이라하야 外務省에서는 同映畵의製作中止와 早川、田中의出演中止及國內輸入禁止等 巴里大使館을通하야 各各通達하엿다。이것은今後日本映畵의 海外進出에 對하야 非常한 쇼크를 주는것으로 關係者間에 注目을 끌고잇는데 原作家데고부라氏는 이것의眞意諒解를 시키기爲하야 勞力中이며 早川 田中 두出演者도考慮中에잇다。(巴里發同盟)

文藝峰來訪

朝鮮映畵"나그네"의製作

이 ᄭᅩᆺ날스므로 李圭煥、文藝峰等 關係者가 人事次로 昨日 本社를 來訪하얏다。(사진은 同一行)

아메리카映畵의 아카데미-賞決定

女優賞은루이스·레이너 男優賞은폴·무니에게

아메리카映畵人들에게는 最高의榮冠이며 終林最大의 年中行事인 映畵藝術科學協會(디·아카데미-·오쭈·띄류어·아-트·엔드 싸이엔스)의 一九三六年度 授賞作品과 授賞者는 다음과가티正式으로 決定을 보게되엿다 今年처음으로 作品十本俳優男女各五名 其他候補를 決定하는 正式投票는 三月三日에 行하엿다。

▲女俳優賞 루이스·레이너(巨星찌펠드에서의演技)

▲男俳優賞 폴·무니 (科學者의길에서의演技)

▲助演俳優賞 월타·푸래논(男優) 게일·손다가-드(女優)」

▲作品賞 메트로 社作品『巨星찌펠드』

▲監督賞 푸랭크·캬푸라(오페라헷드의監督)

▲씨나리오賞 씨리엔단·키푸니 피엘·고링스(科學者의길脚本)

라디오

一日(木曜)

◇午後六時 學年처말 京城女師 曹在浩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東) 講演 健康保險에對하야(邢語) 內務大臣 河原田稼吉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東西의樂風異俗 李晶燮

◇同八時 歌曲 一、羽調頭擧 二、羽樂 三、還界樂 四、界樂 五、編 徐山玉 張明玉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〇分 漫談 黃材景

◇同九時(大)獨唱과管絃樂 獨唱 三上孝子 大阪放送交響樂團 指揮 山田耕作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라디오스케취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同七時三〇分滿洲로부터

◇同八時(東) 라디오風景

◇同八時三〇分(東) 義太夫

◇同九時(大) 獨唱과管絃樂

二日(金曜)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念佛 二、굿거리 三、兩淸 四、방아타령 五、靑春歌 六、漢江水打鈴。 洋琴 李承煥 笑琴 金德鎭 短簫 崔彝成

◇同一時一五分 講演 花草를사랑합시다 尹聖相

◇同四時 普成專門校入格者發表

◇同五時 延禧專門校入格者發表

◇同六時 橫笛獨奏 一、모래산 二、아침 三、旅愁 四、故鄕의廢家 五、찌꿀새 六、봄바람 七、달 八、질거운家庭 鄭德溯 피아노伴奏 金吉洪

◇同六時三〇分 講演 森林과人生 農學士 閔心鉉

◇同七時三〇分 講演 紀念植樹日을마즈며 本府社會教育課長 金大羽

◇同八時 平調念佛外 一、平調念佛 二、자진念佛 三、寧邊歌 四、자진난봉가 五、개성난봉가 六、방아타령 金玉葉 李眞鳳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九十里고개 二、을레방아타령 三、눈물의피에로 四、가시면 모나요 五、달빗을안고 六、山中處女 金福姬

◇同九時 玄琴散調와倂唱 伴奏DK管絃團 一、散調 가、긴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名妓名唱 나、唱劇調…水宮歌 申快童 鼓手 池東根

第一放送

◇午前一一時(大) 野球試合

◇午後〇時五分(東) 和洋合奏

◇同六時(名) 童話

◇同六時二五分(俱樂講座)

◇同六時三〇分(城) 講演

◇同七時五五分(東) 落語

◇同八時一〇分(東) 東京音頭

◇同九時 時事解說

三日(土曜)

◇午後〇時五〇分 京畿立唱 一、놀냥 二、압산타령 三、뒷산타령 四、개고리타령 五、도라지타령 六、자진방아타령 李命山 李命吉 卓福萬 金奏運

◇同一時二〇分 레코-드音樂

◇同二時三〇分 春期競馬場으로부터 語)—新設町競馬實況(邢語) 中繼—(京城、平壤)

◇同六時 理科이야기 『森林』 李軒求

◇同六時二五分 講演 神武天皇祭를當하야 沈宜麟

◇同七時三〇分 音律 一、平調會相 二、吹打 三、與民樂 笑琴 金雨塘

◇同八時 野談 父與孫晉 尹秋園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〇分 室內樂 一、三重奏曲 作品十一番 변한、바이올린、첼로、피아노를위한 一、뚬 못、빌라이스 바이올린 쥬스 첼로 김 피아노 스듀데이 라르겟토알레그로、씨실피아노아나지오、알레그로 오-보、바이올린、피아노 三、三重奏曲 그라운作曲 알레그로 金煉守 吳錫翠 朴鎭基

◇同九時 雜念外 一、雜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흥타령 五、개고리타령 大笒

◇同一〇時三〇分 鮮滿交換放送 (滿洲로부터)—新城— 吹奏樂 一、……指揮陸軍軍樂上尉 張發 1、日本國國歌 2、滿洲國國歌 3、行進曲 國民의精華 4、瞑想曲 夜의瞽報 二、……指揮陸軍軍樂上尉 山田顯藏 1、序曲 歌劇 2、瞑想曲 突擊 3、接續曲 軍歌集 新京軍樂隊

第一放送

◇午前九時三〇分(東) 이야기와管絃樂

◇同一〇時五〇分(大) 野球

◇午後〇時五〇分(東) 合唱

◇同一時二〇分(東) 雅樂

◇同一時四五分(東) 狂言

◇同二時一〇分(東) 吹奏樂

◇同二時四〇分(東) 歌澤

◇同六時(城) 만도링

◇同六時三〇分(城) 副業講座

◇同七時三〇分(大) 國民歌謠

◇同七時四五分(東) 長唄

◇同八時二〇分(東) 琵琶

◇同八時四五分(東) 新講談

산송장 (下)

朴斯月

나는 하숙집주인을 멀거니치어다보앗다。

주인은 이상하다는듯이 머리를개웃거리며 입을열엇다

『죽긴 어디서 죽어요? 하숙집으로에 드러간다고 나간지가 한시간남짓한데 저를 어쩌나!』

『아니 자기방에서 죽엇다는데요』

『아니요』

나는 어째야조흘지 몰랏다。 돌연이 최군이 죽엇다고전화가오지안햇나! 더욱 그죽음은 최군이평소부터 늘걱정하던 뇌빈혈소질이잇다더니 필경은그것으로 급히죽은것이아니냐

그러나 하숙방에서죽은지 몃시간—지금쯤은 뻿뻿한 시체가노혀잇슬것이데 하숙집주인도모를리가잇겟는가? 그러면 최군은 죽은것이아니다! 안죽엇다면 얼마전에 나에게온 어떤여인의전화는 무어일가?

동갑이에게 흘린것처럼 정신이까마해젓다。죽엇다던 친구가죽지 안햇나는것은 올망히 죽을추어도 조흘만치 반가운 일이엿스나 얼마전에 바든전화는무엇일가? 문밧글나서니 차라리 힘이푸러젓다。긴장되엿든 마음의 실마리가 푸러지고나니거름도 터벅터벅발이땅속으로파무처지는것가탯다。

다시 거거서 자동차로 시내에 드러올먼도 업거니와 필요도 업섯다。얼마동안을 정신업시거러서 산송장이까지 나왓다。그리하야 거기서 기차로 시내에드러와서 다방에 드럿다。

이런일이 잇담! 죽엇다던최군이 멀정하게 자기애인과 차를 마시면서 나를 기다렷다는듯이 손목을 잡어주엇다。

『이사람아 자네가 죽엇다기에 하숙까지 갓다왓네』

『허허……신문기자란 동물도 둔할때는 못처둔해……오늘은 사월일일이라네』

『……………』

나는 하도어이가업서서 멀거니 처다만치어다보앗다。

『호호 미안합니다』

최군의 애인은 입을 양토키주둥이가티 하고 우서대엿다

『원 별말슴을다합니다 그런수도 잇슬번한일이지요』

사실이이상 무어이라고 말할수업섯다

이리하야 나는 차집 카렌다를 처다보고 내 자신의 너무나 어정된것을 탄식하엿다。그덕택으로 피나는 살림사리에자동차갑 일원육십전이 그냥나러가버렷고 최군과 최군의애인 두사람의공모로 몃시간동안 정한 산송장노릇을하게되엿다 회한여지는 물론최군의 애인이엿다

名畵鑑賞會 四月三日 四日 午後六時부터 밤十時까지續映

朝鮮日報讀者優待券

入場料 三十錢을 二十錢으로

一人一枚

藝苑實話 慟哭하는舞臺 (中)

張陣

내一生에잇처지지안는 이야기를하나써보겟슴니다

제가 劇界에나오지 얼마아니돼서 中外劇場에서 첫舞台를밟게되엿든것입니다 이소식을들은 집에서는 每日가티反對를하엿슴니다 더구나 완고하기짝이업스신 七十이넘으신할머니께서는 張씨집안을망친다고 每日가티 自殺소동이 이럿낫슴니다 그러나 집을버리며버렷지 劇界와는 손을못끈켓노라 완강히 대하엿슴니다

하로는 내가 舞台에 出演하고잇는데 난데업는 老人한분이 대성통곡을하며 舞台로 올라와서 張氏집안에서 양팡대가나오다니될말이냐고 너하구나하고 죽어버리자고 舞臺에서 야단이시니 하는수업시 演劇은 아직끗도맷지못하엿것만 中間에 幕을내리는 소동이이러낫슴니다

여러團員들은 눈이둥그레것고 客席에서는 이곳저곳에서 수군수군하며 야단이엿슴니다。

나는 團員들에게未安하고 客席여러분께 죄송하여 어쩔줄을몰랏슴니다 그래서 나는 아조집을나와버렷슴니다

그리고 한五六年이 지난후劇成社에서 新舞臺가 公演을할때 나도그中한사람이엿슴니다

그때 내가마튼役은『장화홍련傳』의 삿도役이엿슴니다 그때 마친 장화홍련전을한다니가 누님과 할머니가 求景을오섯다가 내가하는演劇을구경하시면서 손벽을치시엿슴니다

그날演劇이 끗난후에 나는할머니에게 끌리여 집으로갓슴니다。

勿論 할머니께서 演劇을多少理解하시게된것은 누님의힘이만슴니다 누님은 처음부터 理解를하섯스닛가요!

그날밤 할머니는 집에가서 내손목을잡으시면서『진아 너참 신파연극을잘하드라 어찌도잘하든지 내가손벽을 다첫다』하시면서 우스시엿슴니다 그후로 나는집에情이붓기시작하여서 오늘까지 집에잇게되엿슴니다

요즘은 가끔 東洋劇場에演劇求景을하고가시면 누님과할머님과 집안식구와 둘러안저서 演劇評을한답니다

그리고 누님께서 나의演技에對한 評을하실때는 아무辯明도하지못하고 머리가수그러집니다!

胃腸이튼튼해 感氣도 안걸려 一家모도明朗하다

깨단못한 食事의加減으로 直時胃腸을 조치못하게한다든지 자조 감기에걸려 會社를缺勤하게되든 家長이 滋養强壯劑인養命酒를 먹고나서는 胃腸이튼튼해지고感氣도한번안걸려씩씩하게 元氣잇게는 出勤하게되엿습으로나를비롯하야 兒孩들까지가養命酒黨이되여서 每日食口가다가티愛飮을하고잇습인지 요지음은 兒孩들까지가 밥도 만히먹게되엿스며顏色도조와지고 토실토실하게살이쪄서 보시는바와가티 家庭에는언제나明朗한氣分이돈다

胃腸이튼튼해지고 食慾은훨신늘어몸도肥大해저

香川縣 田島政雄

나는昭和六年 六月頃감기에걸렷든것이 原因이되여 胃腸까지도害치고말엇스며 그때문인지、朝飯까지도먹을수업서 一年동안을 苦生을하얏섯다가 昭和八年九月頃 동모가年長者에게멕이는것이라고 하면서 養命酒를 사갈래 나도한잔먹어볼가하야 사가지고 와서 저녁을먹기前에 한잔을 먹은바 단새째되든날 아침 어쩐일인지 배가 곱하서무엇을먹고십길래 밥을먹엇든바 밥맛이 어찌도조흔지 퍽만히 먹엇다。이것은養命酒를먹은德分인가십허繼續하야愛飮하는대 胃腸이퍽조화젓고、朝飯도맛이잇게만히먹을수 잇게되엿다 體重도約二貫假量이增加하고 또한이제까지午後가되면 머리가띵하든것이 不知中이저버리게까지되엿다 只今은父母를비롯하야 妻에게도養命酒를먹으라고하는대 모도들食慾이나고 身體가疲勞하지도안코며感氣도아니걸리여조회를한다(十一年九月二日受付寫眞은本人)

小瓶進呈

貴重한 深山仙酒로서 芳香美味하야 퍽먹기조흔것을 紹介하고저 養命酒試飮用小瓶一本을無代送呈하니東京澁谷區上通四丁目九番地養命酒本舖出張所로葉書로申込하면送呈한다

滋養强壯劑로서

◆强腦强精의目的 ◆胃腸衰弱한者 ◆神經衰弱者 ◆不眠喘息者 ◆呼吸器衰弱者 ◆疲勞倦怠者 ◆貧血厥冷者 ◆根氣薄弱者 ◆虛弱體質者 ◆產前產後婦人 ◆病後回復期等等

信州伊那の谷名産 製法日米專賣特許

鹽澤家傳 養命酒 携帶用 一圓五十錢 大瓶 三圓 德用 四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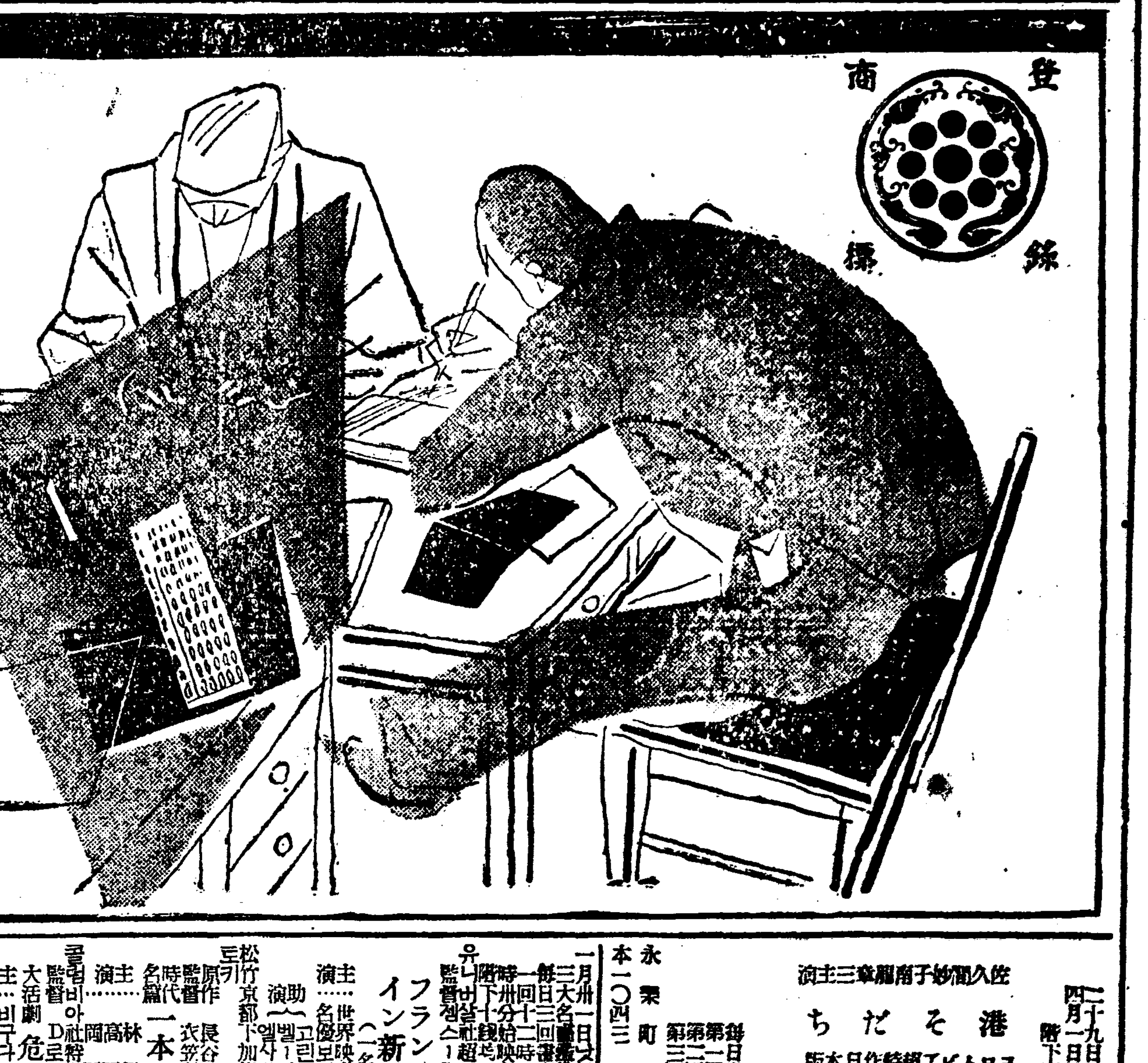
●全國有名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잇슴 品切인때는便宜上東京出張所로注文하면送料本舖負擔、代金引換으로送料實費를밧슴니다。

注意 類似品이잇슴 專賣特許鹽澤家養命酒의文字에特히注意하고사시오

信州上伊那郡南向村大草 製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館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九番地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靑山五二九八番 振替東京六八八五五番

健胃固腸丸 (건위고장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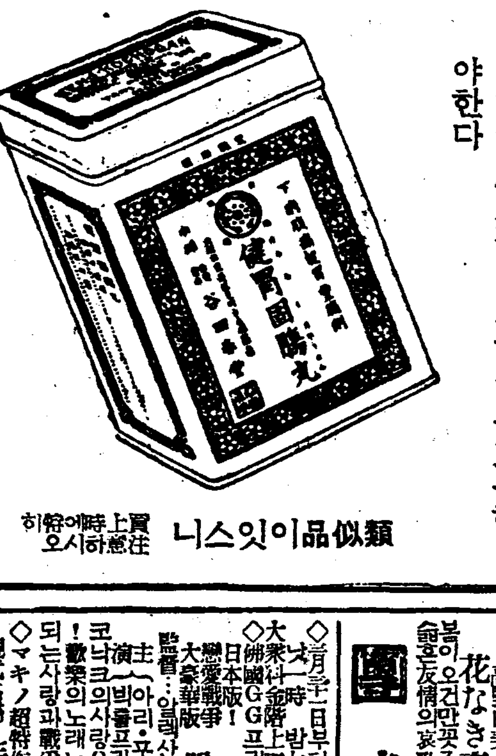
登錄商標

執務家에만흔 胃腸病

하로終日冊床에업대여事務를보고난疲勞한身體의 姿勢는 弱한胃腸에對해서는 그러케조흔 結果라고는할수업다 그때문에 胃腹部의筋肉은壓迫이되여 內臟器管의 活動을不知不識間에減弱하게하고만다 그럼으로 食事直後에 事務를보는것은不可하다함은더말할餘地가업스며 더욱이胃腸이弱한사람은 執務中에라도될수잇는대로 正常한姿勢를갓도록 注意하지안으면 안된다

日日威能的으로되가는都市에서活動을하면 따라서 刺戟的인飮食物을입에대는 機會가 자저지는것도避치못할事情이며 그때문에 胃腸機能의 負擔은漸漸무거워지며 不快한胃病이나 泄瀉를하게되는일은無限한憂鬱이라하겟다

本劑는 高貴藥材를 主藥으로하야調製한것이며 모든胃腸障害에 好評이嘖嘖함은 服用者의經驗으로도잘알수잇스며 明快한 生活을希望하는사람은 어서어서 本劑를服用하야 健全한胃腸을 만들도록해야한다



類似品이잇스니 買上時에注意하시오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三圓 五圓 十圓

本舖大阪 合資會社 谷回春堂

二十九日晝四月一日마데 四日間 階下十錢均一

佐久間妙子南條章三主演 港そだち

コロムビア超特作日本版 ノーマン・フオスター主演 惡魔島脫出

九州男、木下雙葉主演 梁川庄八 後篇

永樂町 本一〇四三 中央館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〇〇 第二回 六、〇〇 第三回 七、〇〇

一月卅一日낫부터三日間大公開 三大名畫豪華週間 每日三回晝夜公演 一回十一時三時七時卅分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유니버살社超特級全發聲日本版 監督 젬스·호엘氏 フランケンシュタイン新婦 (一名프랑켄슈타인의新婦) 主演…世界映畵界의怪男 보리스·카로프氏 助演 엘사·란체스타

松竹京都 下加茂社超特作豪華篇 原作 長谷川伸氏 監督 衣笠貞之助氏 時代名篇 一本刀土俵入 主演 林長二郎 高田浩吉 岡田嘉子

콜럼비아社特作品全發聲日本版 監督 D·로스·레다氏 大活劇 危險地獄隧道 主演 사리·구다·조리氏 리-오·니-르孃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第一劇場

三月二十八日낫부터 劇團豪華船公演第五週 宋影作 悲劇 哀怨草 四幕

海棠花가티곱고純眞스런海濱의處女福順의가슴에도새로운『時代의물결』이출렁거리엿다 그리해서 父母가定해준約婚을勇敢히깨트리고 스스로『새로운生』의길을차저서 굿세이거러갓다! 果然그가開拓하여나아가는『새로운길』은얼마나幸福스러울가? 이純情과浪漫이엇갈니는한編의敍事詩속에도무거운時代의거림자는그늘저잇다!

南宮春作 漫劇 어느作家의스개취뿍 四景

次週豫告 李雲芳作 悲劇『古都의밤』三幕

못지안코못견딀抱腹絶倒의大爆笑劇!

東洋劇場

卅一日封切 (五日間) 每日三回 十時半 一時半 六時半

今週中花王石鹸五個買上하시는분은無料로入場하실수잇습니다

◇와-너뿌러더-스超特作映畵 에드워-드·G·로빈손主演 윌리암·카이리-監督 彈丸이냐投票냐! 快刀亂麻를끈는듯한男中豪傑의悲壯한最期! 깽映畵로서白眉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畵 헨리·킹監督 와-너·박스터主演 자넷·게이너 再逢春

◇新興키네마超特作映畵 名匠헨리킹의純情篇 가난한處女에게비로소찾저오는우슴 高野由美、江川なほみ主演 花なき春の歌 봄이오건만꼿조차볼수업는몸이시도슬픈友情의哀歌!

團成社

京城新堂町 電話(本)五六七七番 新富座

◇三月三十一日부터 晝夜二回上映 每日午後一時 밤七時三〇分始映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大佛映畵 全發聲 日本版! 戀愛戰爭大豪華版 부-리바 主演…빌리·포-르氏 코-라·신재孃 監督…아나톨·리트박氏 佛國GG프리덕쇼 코-락의사랑은野放하고情熱의밤 歡樂의노래는緊張! 草原의展開되는사랑과戰爭의이야기

◇マキノ超特作オールサウンド版 現代名篇 涯しなき航路 監督…田丸重雄氏 主演…中野英治氏 山縣直代孃

◇空中愛活劇 監督…알·로-겔氏 主演…에바·린닥뿌닝孃 젬스·무-렌氏 狂戀의날개

三面七個里를併合
人口는一躍五萬八千名
興南은一面十七個里를增加 人口도五萬五千名
咸興 興南 行政區域變更發表

【咸興】함남도의 행정구역변경안은그동안 도지방과에서 신중히 연구하야오든바 결국 함흥(咸興)과 흥남(興南)의 량도시의 린접면편입에만 결정하고 도에서 총독부에 신청하얏든바 이십구일부로 정식인가가내렷슴으로 삼십일부 도공시(公示)로발표하얏다 함흥의 확장안은 루보한바와 가티 도시계획의 구역인 동천(東川)주북(州北)운남(雲南)의 삼개면 칠개리를새로 편입하기로되엿는데 이로써 함흥의인구는 작년말현재의 일만일천십오호 오만사천삼백오십칠명에 새로 칠백삼십사호 사천이십칠명을 더하야 일만일천칠백사십구호 오만팔천삼백팔십사명이된다 흥남(興南)읍은 운남면(雲南面)의 룡흥리(龍興里)외십육개리를 편입하얏는데 인구는 작년말현재 일만일천칠백칠십삼호 사만사천이백구십륙명에 이천이백삼십칠호 일만구백칠십칠명을 더하야 일만 오천사백십륙호 오만오천이백칠십삼명의 대도시로 팽창하얏다 함흥, 흥남량도시에 전후분할(分割)된 운남면(雲南面)은 오개리 밧게남지 안케되얏다 이번새로 함흥부에편입되는 접면부의 명칭은 다음과가티공포(公布)되얏다

▲沙浦町一丁目 咸興府沙浦町
▲沙浦町二丁目 雲南面沙浦里
▲沙浦町三丁目 雲南面龍湖里
▲會上町 東川面會上里
▲下新興町 東川面下新興里
▲龍興町 東川面龍興里
▲西興町 州北面龍興里 同面西上里

바어니와 거액을투한 교사신축에제하야 현재기지는 교통상으로도 보건상으로 검토하여볼때에 금춘부터 실시되는 학급증설에 의한교정의협착과 교지전체가 북향이기때문에 아동보건상 여러가지 폐해가 만흠으로 남면(南面)급 군당국간에서는 금번기회에 교지까지 적당한곳을 물색하야 이전하기로 내정발표하자 일부측에서 맹렬히 반대하게되엿슴으로 부득이 지난이십구일 오후 일시부터 삼룡교강당에서 림(林)군수 림석하에 면민대회를개최하엿는데 삼백여명 면민이 집합하야 반대찬성의 의견이교차되다가 결국 아무런 결말을 맷지못하고 동오시경에 폐회하엿는바 군당국에서는 이전을 단행하기로하고 만일 지주측에서 불응하면 토지수용령(收用令)까지라도 발할것을 언명하엿다

三千餘圓을橫領
書記數名을또收調
【光陽漁組不正事件後聞】

【光陽】요사이 광양경찰서에서는 모종부정사건관계로 해태조합(海苔組合)전직원을 류치하고 취조중이라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사건은 의외에 비밀리에진행되고잇슴으로 상세한내용은알수업스나 동서사법계에서는 사건발생한후 이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상당히만흔모양임으로 주야를 불구하고 계속취조중이든바 며칠전에 새단서를 어덧슴인지 그당시 림시판매소서기이든 서모(徐某)외몃명까지 류치하고 취조중이라한다 그런데 리사모씨는 동조합재직당시중임에잇슴을 기화로 수회에빼처서 조합돈수천원을사용(私用)한것이 판명된 모양으로 그밧게류치된사람들도 다각기 관계된모양임으로 사건의진전은 대단이 주목 되다 그리고소비한금액으로 지금까지 판명된것만 삼천사백여원이라고한다

蘭谷農場에 大火

【淮陽】지난이십구일오후 아홉시경 란곡기게농장사무실에서 불이나서 일시대소동을 일으켯는데 현리(縣里)소방조가 출동하야 노력하엿스나 원체발화된지 열마후이라 맹렬히타는화세에 그만외채를 전소시켯다는데 그 해액은 약일만원가량 되리라한다 그리고 불란원인은 사무실안에 걸어두엇든 람포가깨지며 발화되듯하다고한다

漁船復舊補助金 二十七萬圓支給
慶南道서漁組를通해

【釜山】작년여름대풍수해로 말미아마 경남도연안 각어항의어선이천오백사십척이 류실혹은파손되엿는데 이어선복구비를 도당국에서 지방비로서 일부보조하기로결정하고 건조에 착수하얏다함은 기보한바이어니와 지난삼십일부로 총액이십칠만원의 도지방비보조금을 각어업조합을 통하야 지급하얏는데 한척이평균약백원가량이라한다

一家族鏖殺企圖
山林關係로發端、一名即死二名重傷
江東郡下의慘劇

【平壤】삼림매매사건으로 분개한나머지 일가족을 살해하여평화스러운 농촌을 피로물드리게한우울한 봄소식이 전해왓다ー강동군고천면 삼성리(江東郡高泉面三省里)주춘빈(朱春彬)(三)은 이십구일 오전령시경동리한경순(韓京順)(五〇)의집에 몽동이를 휘두르면서 뛰여드러가 위선 한경순의 머리를따려 빈사의 중상을가하여 넘어트리고 한경순의어머니 조씨(趙氏)(七四)와그의딸 춘호(春鎬)(一七)의 머리를까기 따려서 조씨는 즉사 춘호도 생명이위독하도록 중상을입히고 선혈이 떠러지는몽둥이를든채로 부근주재소에 자수햇스므로 방금엄중 취조중이다

公設運動場基地
三千餘坪喜捨
宋氏外三氏特志

【延安】연백군 연안면봉구리(延白郡延安面鳳邱里)에잇는 토지삼천칠백여평은 좌기네사람의 소유인 바를 연안공설 운동장(延安公設運動場)기지로 기증하엿슴으로 일반사회에서는 운동장기지를 희사한 제씨에게 감사함을마지 안는다는데 기증자씨명과 평수는 좌기와갓다고한다

一、宋慶日 二、九九二坪
一、韓石天 二七六坪
一、李炳哲 李大植 四六〇坪

그리하야 연안주민이 수년을두고 갈망하던 공설운동장 문제는 전기 특지들의 희사기지를 비롯하야 연안면 봉구리면 유시 일천사백사십평을 병합하야 오천백여평을 운동장 기지로 정하고 금춘에 공사를 착수하야 쾌활한 운동장을 완성하기로되엿다고한다

幼稚園復興基金
一萬圓惠擲
河東余宰奎氏壯擧

【河東】하동유치원은 창설이래 재정난으로 가진곤난을 겪거오다가 하는수업서 문을닷친사사개년에 일즉이 조도전대학을우수한성적으로 졸업한여재규(余宰奎)씨는 모교직에 련임하다가 재작년부터 고향인 하동에 도라와잇스면서 향상시방발전과 육영사업에 부심하야오다가 금번유치원부흥비기금으로 일만원을 자진하야 내여노핫슴으로 오는 사월중에는폐쇄되엿든 유치원의 문을 열게되리라는바 일반은 씨의특지에 감격되야 인가수속에 분망중이라하며 씨의건실한 경신과 장래를위하야만흔기대를 가지고잇는중이라한다

水産校는存續
水試場은鐵山에

【新義州】기보ー룡암포(龍岩浦)에잇는 수산학교(水産學校)를폐지하고 그대신 수산시험장(水産試驗場)을 설치하기로되여 룡천군민간에 여론을이르켜 드듸어지난번도회에서 미증유의 파란을 이르켯다함은 루차보도한 바어니와 그후 도당국에서도 각방면의 여론에감하야 동교폐지설을 중지하고 지난이십칠일 동면학과에서 동교의생도모집광고를하엿다 따라 룡암포에설치하기로 결정되엿든 수산시험장도 중지한후 다른곳에 동시설을 후보지를 선택하야 각방면으로부터 적지안흔 관심을갓고잇는중인데 후보지로는 동곳포(發串浦)가 유력하다고한다

宜川三華學校
移轉問題紛糾
郡廳선移轉支持

【宜川】선천 삼동보통학교(三

國際市哈爾濱에 朝鮮人公會堂
五月中에竣工

【哈爾濱】국제시합빈에는 빈궁한 사람들이나마 일만여에달하는 동포들의 민족부대(民族部隊)가형성되고잇스면서도 한개의집회장소(集會場所)가 업슴을유감으로여겨 다년간현안이되여나려온동 당지 민회에서는 지묘국(地畝局)에 기지를 교섭하는일방 합빈 조선인 공회당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팔구십팔단(八段十八段)에건축평수일백십평에 신축자금 일만팔천여원을조성키에 매진하고 잇다는바 느저도 금년오월중으로는 착공하야 동구월까지 이층양옥준공 락성이 되리라는바 이로써일반에게는 렬렬한후원을 바라는바이며 동위원의면면은 다음과갓다고한다

◇建築委員 委員長 金敎伯 委員 金斗錄 李雲興 朴炳夏 朴南圭 殷世學 金亨淑

北朝鮮定期郵便飛行
惠山鎭을中繼地로(?)馬上嶺에飛行場設置計畫
山地帶에보내는朗譜

【咸興】경성청진간(京城淸津間)의 소위북조선 정기우편 비행(定期郵便飛行)은 최근확정됨에 따라 그중계(中繼)지의선정에대하야는 영흥(永興)의 상공을경유하야 함흥(咸興)을 중계지로하려든것이 가장 리상적이라고하는데 영흥(永興)이 해군 요새지(要塞地)인관계라 군부(軍部)의 반대기잇나고 한나 그리하야이외의 유력한 후보지로서 혜산진(惠山鎭)을 중계지로하려는설이 유력하게되엿다고한다 즉 마상령(馬上嶺)에 비행장을 설치하려는것으로 이미확군기(飛行機)가 와서 설계까지마첫다고하며 그실현은거이 확정적으로 되얏다고한나 이것이 실현되는날에는 함남의오지대(奧地帶)도 새로운 문명의 혜택을 밧게되리라고 기대된다

國立感化院位置
押海道가最適
近日中에確定發表

【光州】신설될 소년감화원은경성서대문외에 설치하려든 것을 전남도해안에 설치하기로 예정 방침을 변경하야 전남다도해(多島海)에 적당한 장소를 조사중이든바 농어업(農漁業)을 겸하여 자급자족할만한점과 기타 여러가지 조건으로보아 압해도(押海島)가 감화원후보지로 최적당하다하야 수일내에 정식결정할것이라한다 그리고 설립최초의 수용인원은 약칠십명가량이라한다

吳義根氏美擧

【尙州】경북 상주읍 병성(屛城)에 사는 오의근(吳義根)씨는 지난 이십팔일에 자기친척중 극빈자 삼십삼호에 백미오두와 대두이두식을 배급하얏다는데 앞으로는 동내에거주하는 일반 저빈자를 구제할예정이라고한다

銅線專門窃盜犯
短刀로警官에對抗

【平壤】평북태천출생(平北泰川出生)으로일정한주소가업는 김병수(金炳洙)라는 리만석(李萬錫)(二三)과 강서출생(江西出生)의조원선(趙元善)(二三)의두명은 작년부터 부내각처에서 동선(銅線)연괴(鉛塊)등을 전문으로 절취하여 고물상에파러가지고 유흥비에 충당햇섯는데 이십구일오전영시경 부외동대원리(東大院里)종전회사창고에 침입하여 동선과 연괴 가격사십이원을 절취해가지고 부내 교구정(橋口町)고물상점에와서 팔려하는것을 평양서원이 발견하고 체포하려는순간 조원선은 다라나고 리만석은 칼을휘두르며 경관에게 달려드는것을체포햇는데 이자는 십수건의 범행을자백햇다한다

大南浦建設期成會
常任委員決定

【鎭南浦】대진남포건설을목표로 지난이십오일 진남포공회당에서 관민유지 오십여명이 모히여간담회를 개최한결과 십년을하로가티 발전성이잇스면서도 오날까지침체상태에 잇슴은 천만유감이나단지 루만부민이 총동원하여 대진남포 건설기성회(大鎭南浦建設期成會)를 조직한후 전형위원을 선정하여 제일선에 나서 활동할상임위원을 선거하여일임하기로 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지난이십팔일 전형위원회를 공회당에서 열고상임위원을 아래와가티 선거하엿다고한다 이로부터 상임위원들은 대진남포 건설책에대하여 구체안을세워가지고 맹렬한활동을시작하기로 되엿다는바 어떠한결과가생길런지 루만부민은 크게 관심을가지고잇다고한다

大鎭南浦建設期成會常任委員(無順)
長谷川照雄 山田天山 服部春二 鈴木種一 靑木健三郞 象山部次郞 李錫彧 李榮館 佐藤長五郞 林蘊根 加藤榮太郞 大浦秋吉 龍技太棐 野田良二 鈴木孝太郞 河村興助 高秦和 尹基元 金秉樹 黃敎秀 安爾韓 田瀨哲次郞

"내血肉돌려주"
姙娠九朔에滿洲國人에改嫁해서
나흔아들을前夫가請求訴訟

【全州】전주부완산정(全州府完山町)심사봉(沈四奉)(二三)이란 녀자는 본부박병중(朴秉仲)과 팔년전에 임신구개월된몸으로리혼한후만주국인장수진(張守鎭)(三七)과결혼한후 이래동거생활을하야오든중 재작년에 장수진이 사망하엿스므로 작년봄에 그의사후 일주년 제사를지내랴고 망부의 본적지인 봉천(奉天)을갓든바 장수진의 가족으로 부터 이아해는 장수진의 아이이니 이곳에서 양육하겟다고 하므로 아희를 봉천에다 두고왓든바 이소식을 드른 전부박병중은 친자엿도 청구소송을 제기코저준비중이라고한다

淸州市區域擴張
境界線實地視察

【淸州】청주시구역확장은 드듸여실현되여 사월일일부터 사주면십사개리가 읍으로 편입된다함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지난삼십일 읍회에서 그경계선이실지로 불필요하다하야 동일 오후한시부터 세시까지 자동차로 읍회의원과 청주기자단 이십여명은 청주부읍장의 안내하에신편입지 경계선과 편입지완곡을 실지로 시찰하엿다고한다

숨은絕勝
利原의"白沙靑松四十里"
咸南道宣傳에努力

【咸興】리원군남송정(利原郡南松町)부근의 해안은 실로 일백이십여정이나되는 동안이 전부송림(松林)으로서 동해동륙의 백사(白沙)와함께 조선에서도 제일이된다고하는 절승지(絶勝地)라고한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불리한 관계로 이제까지는 그일홈이 조금도 나지못하고잇섯든바 도당국에서는 최근에야 이명승지의가치를 인식하게되야 그의 리용안에대한 여러가지 구체적 조사에 착수하기로 되얏다고한다 이리케 조사를필한 이후에는 남송정(南松亭)의 송원(松原)에 대규모의 결핵요양소(結核療養所)를 설치하는한편 피서지(避暑地)로서 적당한 시설을할 방침이라고한다

換錢票를變造
額面一圓을廿圓으로
大邱署犯人搜探中

【大邱】십원짜리위조지폐가 빈발하드니 이번에는 소위체(小爲替)변조사건이 또생겻다 이십구일 대구수형교환소(大邱手形交換所)에나타난 한장의 소위체를 대구우편국의 계원에게 검사를 구하엿는데 진출국은 김천(金泉)우편국으로 일원짜리를 이십원으로 변조하엿는데 이변조소위체는 대구부신정(新町)리상연(李相實)ー가명ー씨의방에드러온것을 동씨의 거래하든은행구좌에 예금되여 교환소에드러온것이라한다 그리고 대구서에서는 이변조소위체의 출처를 방금 엄탐중이라고한다

辯護士會總會
正副會長을改選

【平壤】평양변호사회(辯護士會)에서는 수일전 로정가선(歌扇)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가티 정부회장의 개선을햇다한다

▲會長 姜炳駿 ▲副會長 鶴本東

正體모를靑年
鐵道飛入自殺
原因은身病悲觀

【禮山】대자연을 찬미하는 춘광이 바야흐로 깁퍼가는 삼월삼십일 오전여섯시경 례산군 례산면석양리(夕陽里)선로부근에서 사십미상의 삼십세된 사나이가 경남선열차에 뛰여드러 무참하게도 즉사하엿는데 죽은원인은 신병을비관하여듯하다고한다

四面蹴球大會
空前의大盛況

【鎭南浦】평남용강군오신면덕해 체육회(德海體育會)주최와 본보 진남포지국후원의 제이회사면축구대회(四面蹴球大會)는 예정과 가티 지난이십오, 륙량일간 통명학교(通明學校)운동장에서 개최되여 지운, 오신, 다미, 양곡(池雲, 吳新, 多美, 陽谷)사개면각리에서 이십사팀의참가선수삼백여명의 장엄한입장식이잇슨후회장김취신(金取新)씨의 개회사와 주의가 끗나자 경기는시작되여 송원도 한우간(宋元道, 韓又乾)량씨의엄중한 심판으로 량일간 경기를 진행한결과 최후승리는 지운면양화리청년단(陽和里靑年團)에게로 도라갓는바 매일관중은 무려단어명으로 공전의 대성황을 일우엇다고한다

忠南土木事業에
所要延人員二百萬
道當局에서供給調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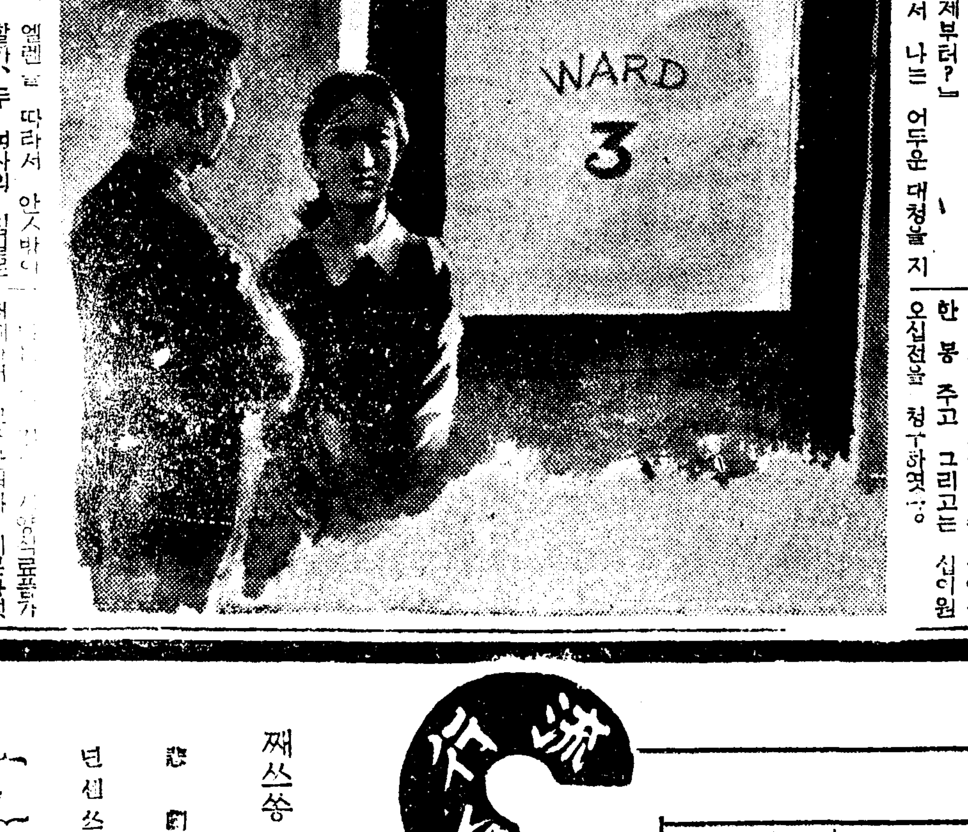
【大田】십이년도 충남도치산치수와항만(港灣)공사등의 각종토목사업은 충남도토목과에서 그동안입안 조사중이든바 이래그 대체가 결정되야 사월실시경에는 총독부에 인가를신청할모양인데 금번은 유사이래로 처음보리만치 다수의 로동자가 동원되리라고 보인다 이것은 오개년계속사업이니 만치 토목과에서도 동인원을 조절하기 위하야 그동안 연구중이든바 십이년도 일년동안에 소요될 연인원은 일백구십구만오천일백십오명의 다수에 달한다고 한다 전도민 일백오십만명의 약삼분의일이 동원된다하야 충남도의로동자에게는 적지안흔도움이 되리라고한다

地方人事

▲金弘極氏(平壤府廳)新任人事次本社平壤支局來訪
▲金儁武氏(平原郡廳庶務主任)轉任人事次同上
▲文復煥氏(湖南銀行居昌支店支配人)退職人事次本社居昌支局來訪

婚需品詐欺
新婚夢깨진考總角

【釜山】봄마지한흡는총각이 결혼할혼수품갑을 사기하다가 철창안에서 봄을저주하고잇는사건이잇다ー사건의주인공은 서울출생으로 부산부수정정(水晶町)에 살고잇는 무직김봉업(金奉業)(三)으로 어렷슬때에 부모를여이고 각처로도라다니면서 일정한 직업도업고 가진돈도업서서 나이삼십이넘도록 결혼을하지못하얏는데 고독을견듸다못해서 결혼하고저 애를쓰던남어지 동정내에사는 최모(崔某)(二五)와 결혼할약속이되엇스나 결혼하는데쓸비용백여원을 변통할수업서서 고통하든끄테 지난이십팔일 오후



長篇小說 그의自敍傳【99】

長白山人 作
熊超 畫

북경(十一)

서리라도 올듯한 싸늘한 어떤 밤. 나는 얇다란 담요 하나에 쌓여서 치위를참고 가까스로 잠이 들엇을 때에,

『오빠, 오빠』

하고 부르는 소리에 깨엇다.

『엘렌이냐? 왜 그래?』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낫다.

『언니가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굴고잇어요』

하는것이 엘렌의 대답이엇다. 찬 방ㅅ바닥에 춥게 자는 나도 배ㅅ속이 편안치를 아니하엿다.

주머니에 돈이 삼십원밖에 안 남앗다는 생각이 번개같이 내 머리에 지나갓다.

『언제부터?』

하면서 나는 어두운 대청을 지나서 엘렌을 따라서 안ㅅ방이라고 할가, 두 여자의 침실로 갓다. 석유 등잔이 그물그물하는 밑에 마가렛은 자리옷바람으로 몸을 가누지도 못 하고 괴로워하고 잇엇다. 손 발이싸늘햇다. 관저인가. 이마에서는식은 땀이 흐릿다.

『엘렌아, 내, 아궁이에 불을집힐께, 너는 물을 좀 끓여라』

하고 내 담요까지 갓다가 마가렛을 덮어주고, 아궁이에 장작을 한 아궁이 집혀넣고 그리고는 마가렛의 등을 문질러 주엇다. 마가렛은 인사체면 불고하고 내목, 어깨할것없이 매달리며 괴로워하엿다.

나는 의사를 생각하엿스나밤새로 두시에 어디서 의사를불러오나?

나는 엘렌과 함께 끓인 물로 마가렛의 손 발을 씻엇다.

마가렛은 뒷간에를 간다고 햇으나 일어날새가 없이 자리에 설사를 하엿다. 엘렌의 말에 이것이 세번째라고 한다. 뿌유스름한 쌀뜨물 같은설사! 나도어머니 아버지가 호렬자에 돌아가실때일을 생각하엿다. 쌀뜨물 같은설사!

밝기까지에 몇번을 설사를하엿는지 모른다. 마가렛은 허탈이 되어서 눈을 뜨지 못하엿다.

이해에 북경에는 호렬자가들앗다. 기실 북경에는 호렬자없는 해가 없다고한다. 아마 일전에 아래채에서 죽어나간 여편네도 이 병인지 모른다.

나는 밝기를 기다려서 행길에 나섯다. 병원을 찾자는것이다. 나는 동인병원(同仁病院)이란것을 어디서 본것을 기억하고 그 방향으로 걸엇다.

『이 일이 장차 어찌되랴는것인고?』

나는 앞이 캄캄하엿다.

X타는 병원이 눈에 띄엇다 나는 X의사를 청해가지고 집으로 왓다.

『콜레라!』

라고 그는 진단하고는 주사한대를 놓고 달아나버렷다. 내가 그를 뒤따라 가서 치료방법을 물을 때에 그는 그린듯이도못한 영어로,

『부랜디, 앤드 레몬』

이라고 말하고는 무슨 극약을 한 봉 주고 그리고는 십이원 오십전을 청구하엿다.

엘렌과 나와는 사흘동안 거의 한 잠도 못 자고 마가렛을 간호 하엿다. 나는 도저히 마가렛이 소생하지 못할줄 생각하엿으나 차차 병이 돌려서 사흘째 되던날에는 속이 편안하다고하고 잠도 잣다. 마가렛이 색색 잠이, 든것을 볼때에 내 기쁨은 실로 비길데가 없엇다.

『엘렌아. 언니가 낫나보다』

하고 나는 엘렌을 돌아보앗다.

『오빠의 정성으로』

하고 엘렌은 내 가슴에 얼굴을 대고 울엇다.

『엘렌아 인제 내방에 가서 좀 자거라. 네가 자고나면 나도 잘테야』

하고 나는 억지로 엘렌을 내 방에 끌어다가 누이고 담요를 덮어주고 그리고는 석탄산을 물에풀어서 마가렛의 더러운옷과 자리를 소독해서 빨앗다. 이런 일을 하는데는 내가 엘렌보다 낫다고 생각하엿다. 그래서 마가렛의 부정한 배설물 처치는 모두 내 손으로 하엿다. 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앓으실 때에 넘어도 어려서 잘 구원을 못한것을 후회하기때문에 앓는 사람을 보면 내 정성것, 힘껏 그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엇다. 『오빠 정성때문에』라고 한 엘렌의 말은 이것을 가라친것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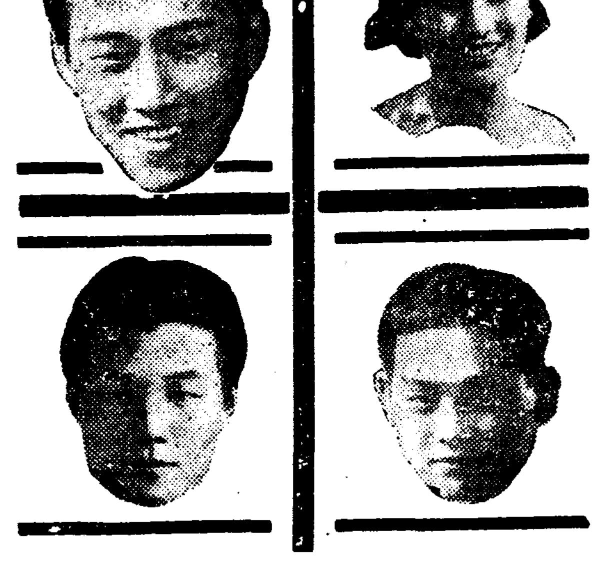
오케ー 4月新譜

流行

流行歌	人生午前 봄處女	金海松 李蘭影
流行歌	愉快한주정꾼 돈실너가	金貞九 金貞九外四人
流行歌	國境의버들밧 哀愁의제물포	宋達協 南仁樹
流行歌	올팡갈팡 故鄕은부른다	金海松李蘭影 李鳳龍李蘭影
流行歌	胡弓을타면서 사나히마음	金賢淑 高福壽

재쓰송 哀想의뿌르쓰 金海松 / 코로라드의달 孫안드레ー (一九八一)
悲歌 문허진象牙塔 朴昌煥 池崔順 (一九八四)
던쓰 世界一週 金元浩 孫一平 (一九八五)
天地萬物歌 / 蔭陽轉倒歌 林芳蔚 (一九八六)
거문고竝唱 農夫歌 / 자진農夫歌 申快童 (一九八七)
伽倻琴竝唱 皇城을나가는데 / 途中방아타령 金錦嵒 (一九八八)

舊謠



興南傳 저아전 朴初仙 (一九八九)
短歌 天下太平 朴初月 (一九九〇)

OKEH 오케ー레코ー드

郵貯利下로 預金轉向?
四月一日부터實施되는것

低利時代의現出에 伴하야 銀行預金의 郵貯流入이 今日에問題되고 今次郵貯利下와 如함도 增殖에[illegible] 硏하야 이러한데에서 나온것인데 朝鮮은外地金利水準의 相違로 [illegible] 認하야 利下幅半減하얏다고는 하나 反對로 郵貯로부터 銀行其他金融機關에의 資金流入이 豫想되는狀況이라한다

卽京城甲種銀行의 定期預金으로부터 預金課稅를 控除하야도 郵貯에比하야 三厘八毛의 有利이오 据置預金도 六毛二絲이나 銀行이有利하며 乙種銀行에預金하면 그利差가 擴大되고 貯蓄銀行預金、金組預金도 郵貯에比하야 斷然有利하다 從하야 郵貯로부터 貯蓄預金其他에의 流入이 相當히 行할것이라보이는데 이點이있서서外地特히朝鮮의特殊事情이라겟다

預金、證券利子 課稅同率
證券에資金逃避?

政府의 稅制改正과 臨時租稅增徵法(朝鮮에서는 增徵令)은 四月一日부터 實施된結果 各銀行信託 東拓의 預金과 證券利子課稅는如何한課稅로 되느냐하면

一、銀行預金에 對한 綜合課稅는 從來의 所得稅百分의二、新設資本利子稅百分의三、이에 臨時增徵令에 依한 課稅百分의一 卽百分의三의 課稅로되어 十割增徵으로된다

一、公債利子에對한 課稅는 從來의 所得稅百分의三에 從來의 資本利子稅百分의二에다가새로이 臨時增徵令에依한百分의一課稅로된다 卽 特別預金利子及 證券利子課稅는 百分의六으로되어 同率로되더로 從來優遇되던 預金은 證券과同一로 됨으로證券에의資金逃避가 成行하리라고도한다

證券移轉稅無影響

有價證券移轉稅는 朝鮮에서는 實施되지안으나 同稅의 負擔은 原則으로서 買方의負擔임으로 證券의對日本內地取引에있서서는 朝鮮內의取引에도一切課稅되지안케되어 朝鮮에는無影響이라한다

地元銀行間의 預金爭奪緩和

朝鮮內銀行經營의 基調는 從前 預金資出의總額을 競爭하는傾向이 있엇스나 最近에至하야 預金貸出의均衡과 內容檢討를行하는 傾向을 보이어 顯著히 轉向을보이엇다 其中에있어서 特히注目되는것은 預金爭奪의消化로 從前은 地元銀行과 支店附設에 依한 高利預入써 비슷와 如한것이 漸次 이[illegible]이엇스나 此等이 漸次 是正되는中이라한다

全朝鮮一律 까소린値上

四月一日부터 實施에 入한 稅制改正에 伴한 까소린消費稅令의 施行에 依하야 朝鮮石油關係內外油各社에서는 비롯하야 有稅率에 基하야 一箱五十錢까지 各引上을 實施하고 全朝鮮一律로 値上하얏다 이新稅賦課의 結果는 自然的으로 까소린市場의 混亂是正이 期待되는데 이와 關聯하야 引上設定은 石油關稅는 未了대로되엇다

水産製品檢査所
本所一、支所四、出張所二三

朝鮮水産製品檢査는 從來各道에서 施行하야오든것을 四月一日부터 檢査官을따로任命하는同時에 京城에 檢査本所를設置하고 淸津、元山、釜山、仁川等四個所에 支所를設置하기로되엇다 그런데 新檢査所官制와 檢査所의組織內容은大略左와如하다

一、本所＝京城에、支所＝淸津、元山、釜山、仁川四個所에 設置하고 各支所의區域은

咸北＝淸津
咸南、江原＝元山
慶南北、全南＝釜山
全北、忠南北、京畿、黃海、平南北＝仁川

等으로하고 二十三個所의出張所를 設置하야 各支所와함께 檢査事務를 分擔한다

一、檢査官制、檢査方法、檢査標準等은 一律로從前의 水産製品檢査規則에 規定되어 있는것을 依據로하고 今回는 此를 新設檢査所에서 實施하도록 하고 檢査所의 改正은 [illegible]

一、檢査員은 아직은 從前대로 하고 檢査所新設에 伴하는 增員은 昭和十二年度豫算으로써 實行할豫定이다

四、本檢査所의創設에關하야는 目下漁業中의 [illegible] 本[illegible]制度[illegible]

京城商議議制改正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四月一日부터 職制改正과 所員擴充에 伴하야 如左히異動을 發表하얏다

庶務課長主事 桐木 爾吉
業務課長主事 赤尾 正夫
調査課長主事 大森 忠男
會計課長主事 竹內 唯海

銀組手數料協定
十日부터實施

京城組合銀行의 送金手數料當座預金 等手數料等은 從來各行區區로 一定치 안엇스나 郵便料金의 値上과 一般經費의 膨脹으로 이것을 統一키로되어 四月一日의 木曜會에 附議한後 手數料規定을 設하야 四月十日부터 實施하리라한다

移出餘力은僅少
比前年二百萬石減?
累計벌서九十一萬三千石減
賣惜이아니오쌀이적다

昨秋以來 全般的으로 閑散한 朝鮮米界는 三月中에도 亦是閑散하여 移出은 前年의 七十六萬二千餘石에 對하야 五十六萬七千餘石으로 約二十萬石의 減을 보아 十一月以降의 累計로보면 前年同期가 四百九十一萬九千餘石이든것이 今年에는四百萬六千餘石으로 九十一萬三千餘石의移出減을 보이고잇다 그反面에三月末까지의 米의移入은 前年의三萬六千餘石에 對하여七萬九千餘石으로 量은적으나 前年에倍를 넘는다는 逆現象을 보이고잇고 또滿洲粟의輸入은 三月末까지 累計가 三十四萬二千餘石으로 前年의 五十四萬二千餘石보다 二十萬石의 輸入減이다고 이고잇다

가튼 米穀移出減에對한 農林局의 觀測은 昨年의 從來式調查의平年作 一千七百萬乃至一千八百萬石에 比하여 一千五百萬石이라는 大凶作이어서 大體로 朝鮮內는 移出에 供할 米가 涸渴狀態에 잇지안흔가하고잇나 卽 生産者로서는 지금까지 放賣치안코 잇는것은 皆無하다고 볼것이고 第一貯藏米가 잇다는 大農家側이나 大商人中에 잇을것으로 今後 移出은 잇다해도 漸減의 傾向을 보일것이다、그러고 總移出量도 昨年의 九百餘萬石에 對하야 今年은 二百萬石內外의 減을보리라는것은 不可避의 事情으로 보이고잇다

米穀檢査의實績
正租激增、玄米著減

昨年十一月以降 三月中旬까지의 各地米穀檢査數量을 前年同期에比하면 (正租는九十斤入、玄米는四斗入、白米는六十키로入을 一單位로함)

	本年	前年
▲正租	一四、五八九、三七四	一一、六五四、六〇二
▲玄米	六、四七四、四〇四	九、八六七、一〇三
▲白米	五、三四二、四〇六	五、四二六、〇三三

인데 이裏面事情으로觀測되는바를 들어보건대 正租의檢査量이 增加된것은檢査制度가 強化된一面口販賣에는檢査를要한것이라야有利한것이므로 生産者들의 受檢이 만허진것이 원울수잇고 이에따라 産地의 數出이만허진것을알수잇다 그러나 玄米의受檢量이 大減한것은 移米의受檢量이 大減한데비치워 移出米의品量不足을말하는것으로 볼수잇다 다음은移出의 玄米보다 白米로하는것이有利하여 玄米의移出보다 白米의 移出이今年은相對的으로增加하엿음을證明하고잇슴이라고보고잇다

液體燃料 調查委員會

總督府에서는 政府의 燃料國策에 順應하야 十二年度부터 液體燃料工業의 積極的助成에 進出키로 되엿는데 이에伴하야總督府內에 새로이 液體燃料調查委員會를 設置키로된바 右調查委員會委員은 總督府 財務 殖産 [illegible]

一、新配定數量
五分으로制限함
現在(但日比協定에 伴하야修正한것) 대로함

人絹織物輸出
對滿北中十倍激增
但大部分日本內地産

二月까지의 朝鮮의對外貿易으로 超記錄의好勢를呈케한 重要品으로는 人絹織物의 對滿、對北中의輸出이 注目되고잇다 卽二月까지의輸出額을보면

		千方碼	千圓
今年		六、四五四	一、八〇三
前年		六三二	一八五

로 前年에比하여 十倍의輸出增을보이고잇다 今年輸出品을產地別로보면

	千方碼	千圓
朝鮮產	六四七	一一四
移入品	五、八〇六	一、六八九

로 大部分은 日本內地産의高級品인데 滿洲國方面으로가는것은 鐵道로直行하고 其餘는船便으로 仁川을經由하여 大連으로가는데 이것은 大部分 北中國으로가는 것으로 認定되어잇다 또二月까지 人絹織物의移入을보면

	千方碼	千圓
今年	一六、四四一	四、二三三
前年	一七、八二三	五、六七六

으로 移入은 前年보다 減하고 輸出이 激增한것은 朝鮮産이增加反面에 朝鮮內消費가 多少減하지나안헛는가하는 觀測도업지

商店界消息

○花王비누宣傳 花王비누本舖長瀨商會에서는 京城市內에서宣傳行列을하는同時에 三十一日부터 五日間 花王비누겁질五枚를 持參하는분에게는 鷗成社入場券一枚式을 贈呈한다고

○森永小鳥進呈 森永製菓에서는 四月一日부터 製品買上客에게小鳥進呈幸運券을 景品으로준다고

取引停止 (三月廿九日) 米穀商 京城府寬勳町四八 和齊商會 宋在五

寸鐵

○農林省에서는 三月一日殘存米를보고 今後의 朝鮮米移入을 四百五十萬石으로 需給推算을하얏는데

○朝鮮農林局觀測에依하면 賣惜에依한 移出減이아니오 事實로 凶作때문에 移出餘力이적다고

○그러다면 米穀問題는 意外의方面으로 展開되지안흘가?

○統制改正으로 金融界에 新方向이 豫想된다고

○郵貯에서 他金融機關預金으로―預金에서 證券投資로……

『코―스』가 果然그럴지는몰나도ㅡ경거리는 단단히될 듯

日印通商協定
一兩日中調印
◇決定된內容

【뉴―데리―三十一日發同盟】日印通商交涉은 折衝以來九個月을 經하야 비로소成立되어一兩日中에調印케되엇는데 決定된內容은 大要如左하다 한다

一、色地의輸入配定率은 綿業(一割其他一割七分 合計二割七分(現行三割四分)으로함
一、生無地의配定率은 四割(現行四割五分)
一、綠附生地一割三分(現行一割三分)
一、白地一割(現行八分)
一、綿업스 綿布總輸入額의二割

命令航路 施設改善
補助八十五萬圓

遞信局의 昭和十二年度命令航路補助額은 八十五萬二千圓으로前年度에 比하야 三萬三千圓增加인바 命令航路施設의 改善事項은 如左하다

一、北朝鮮北海道線을 開設한것
一、外國航路의 釜山定期寄港을實現하고 南洋 같은方面에對한 朝鮮產輸出品의 直積에便케한것
一、朝鮮、上海線의 航海回數增加를 國하고 一部를 北朝鮮에 定期延航케한것
一、北朝鮮、東京線中 遞送大阪間의 航海回數를 增加한것 그리고 航海別은 如左하다

▲近海航路
北朝鮮敦賀線 (朝郵)
北朝鮮東京線 (同)
朝鮮北海道大連線 (島谷汽船)
朝鮮北中國線 (朝郵)
朝鮮上海線 (同)
朝鮮長崎大連線 (同)
西朝鮮東京線 (同)
釜山博多線 (九州汽船)
麗水下關線 (川崎汽船)
北朝鮮新潟線 (朝郵)

▲沿岸航路
北朝鮮伏木線 (北陸汽船)
北海道、北朝鮮線 (島谷汽船)
釜山鬱陵島線 (朝鮮汽船)
木浦濟州島線 (同)

▲河川航路
新義州中江鎭線 (鴨江運輸)
新義州新之波鎭線 (同)

▲寄港航路
大連芝罘線 (阿波共同汽船)
仁川寄港 (同)
大連天津線 (同)
仁川、鎭南浦寄港 (同)
爪哇線 (南洋海運)
釜山寄港 (同)
칼갓타線 (大阪商船)
釜山寄港 (同)

種子代를補助 大小麥을獎勵

總督府農林局에서는 十二年度부터 十個年의耐冷作物增産計劃을 樹立하고 種子代의半額을國庫補助에依하야 黃海、平南北、江原、咸南北의六道에 大小麥의栽培獎勵를 實施키로 되엇다 大麥은 十個年三萬八千町步를 黃海를 除한五道에 小麥은十個年一萬町步로서 平南、咸北을 除한 四個道에 實施키로 되엇는데 初年度의 各道別栽培面積은如左하다

	大麥	小麥
黃海	―	一、〇〇〇
平南	一、〇〇〇	―
平北	二、〇〇〇	一、〇〇〇
江原	三、〇〇〇	七、〇〇〇
咸南	二八、〇〇〇	七、〇〇〇
咸北	四、〇〇〇	―
合計	三八、〇〇〇	一〇、〇〇〇

株式 一低後에反堅

前場往來
昨後場은 買方의新規買로下交되어 大引되엇는데 今朝에도 外電은 區區하엿스나 寄付는比較的 商强하엿으나 政局不安을反映한 人氣의不安은 아직安定되지아니한 모양으로 投物은 尙今繼續하야 鐘新은 二百八十三圓丁東新六十一圓丁까지 再反落蓋告하야 小波瀾商狀이되엇스나 低價에는 利喰急에加하야 買方의防戰도잇서 다시反騰에 寄付價를거의 回復할듯한步調로 前場을마치엇다

後場底堅
後場은 鐘新二十錢高等으로 區區한寄付하고 買方의 新規買가 顯著하야 市勢는容易히 低價를不許하고 底堅裡에推移되엇다

追擊賣는警戒
整理途中에 買方의煽揚으로少康된市勢가 昨日議會解散에依한 政局不安을 反映하야再次一轉崩落을 告하엿고 昨後場下交商狀을呈하엿스나 今朝에다시新低價에로 買叩되는等 相當한 波瀾을惹起하게되엇음으로 連勝을得한 軟派는 乘勝長驅의數物을내는同時에 이제야反動期는 왓다는것이 低價로부터 低價에로 하려고드는모양인데、이에 對하야는 愼重한一考가必要하리라고 某老鍊側은말한다。大體今回反落의 始初가決코 經濟界의基調나 國際關係의惡化等悲觀材料하지아니한데 材料에 依함이아니오 오히려 買方이 늦게야 經濟界의 實勢를깨닷고 踏物을 낸것이 原動이되어 鐘新中心의 奔騰이 過度한 暴騰을 防止한다는意味에서 다시말하면 混亂의危險을 未然에 防止한다는意味에 證據金을 引上하고 이어서高率의 日步를加하야 小口買方의投機心을 抑壓한데 不過하엿든것이다 이제各方面에서 이 不當함을 論難하고 또한이入爲的抑壓이 長久히 繼續되지못하리란것도 모두豫想하고 잇는바 이어니와 비록議會解散으로 再開되엇다고는하나 이는政黨에對한 膺戒的 解散에不過하고 政局前途에 이러타할 不安이 뵈아니라 豫算이 成立을 今日에 何等不安視할것이 못됨은 勿論이니 이리하야 玉整理가 强行되면 다시 世界的인 好景氣를 反映하야 다시 本格的인 回復을 보일것이니 지금이 反動前期는 될는지 모르되 反動期到來는 아니니까

今日의市勢 (一日)

整理低의場面
今朝의 鐘株市場은 (當力株가 保合不變이오 (鐘紡株는 阪神이 八十圓五十錢으로 七十錢低、同新不變이며 京阪은 三十八、五로 五十錢低、商船은 八十錢低로八三、二 同新이 三十錢低로 三三、五이엇스며 織維株도 弱擧人絹의 二十錢低 日毛의二十錢低 東邦人造의 一圓五十錢低(五一、五)入造毛의 三十錢、日紡新의五十錢、帝國新의五十錢低、片倉製絲의二圓低(二八、五)等으로 一齊不勢인데唯獨昭和人絹만은 一圓高로 六四、五를 보엿고 金屬株도 二十錢低、日曹도 一圓低로 五이엇다 日本鐵鋼도 同新이 八十一圓으로 一圓高이며 電工新은 區區落으로 八十錢低이며 大阪製鐵도 七十錢低 로八〇、五同新一圓低로 三三、五 宇部세멘트五 二十錢低、三菱重工業은 同新이 二十錢低로 [illegible]

朝取新上場株認可
朝鮮取引所에서는 短期取引上場株의 認可申請을 하얏든데 三十一日附로서 十二銘柄이 認可되어 近間常議員會에 諮한後上場할터인데 認可地株는 朝鮮製鍊、米穀倉庫二株이오 日本內地株는 日本電工、日本曹達外八銘柄이라한다

小林鑛業株配當
小林鑛業의公募株五千株配定은 四月一日如左히決定하얏다
一、十株―六十株까지의申込에對하야서는 抽籤에依하야 十株(當籤率五割)
二、百株―二百株까지는 抽籤에依하야 十株(當籤率三割)
三、二百十株―五百株 二十株
四、六百株―千株 二十株
五、二千株 四十株

實物前場取引
▲日本新新(配當落) 九〇、〇〇▲日本電工新(配當落) 四〇、〇〇▲大同電力新 一〇、六〇▲小田急 一〇四、一〇▲伊那電鐵新 一〇、〇〇▲第一테절 三六、一〇▲東洋製꼬 三〇〇▲第三工業 六、四〇▲十五銀行 六〇、〇〇

國債 買氣擡頭上伸

▲東京 【東京電話同】 五分利債는繼續하야大衆買物이잇서甲五分利第三共히五錢乃至十五錢上伸하엿스나 四分利債는傍觀되어不活潑하고外貨債도 大體로鈍狀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二、三〇 ▲一回四分 一〇〇、〇〇 ▲佛貨 一〇〇、〇〇
▲大阪 ▲甲五分利 一〇二、三〇 ▲四分半は 一〇一、〇〇 ▲第三五分利 一〇二、三〇 ▲四分半は 一〇〇、〇〇 ▲一回四分 一〇〇、三〇 ▲二回四分 一〇〇、三〇 ▲佛貨 [illegible] ▲米貨 [illegible]

米期 上鞘發會 强調

前場保合
今朝 大阪地中限은 前六月限는 三十三圓八十四錢인 七丁高로 新甫六月限은 三十一圓六十錢인 六丁高 中限三十一圓七十九錢인 七丁高로 當限三十一圓九十三錢인 三十五錢高로 發會되고 常地는 十四丁上鞘로 新甫六月限은 州一圓九十三錢인 六丁高로 最高로 八十錢內外에서 保合하다가 寄付九十三錢을 最高로 八十錢臺에서 保合止場하엿다

後場上放
後場은 三十一圓八十七錢인 二丁高로 始場한後 二節八十六錢이엇스나 三節八十七錢 四節九十錢으로 五節九十九錢으로 上放하엿다 하다가 結局 八十五錢으로 場을 止하엿다

六限의發會와 前途大勢一考
客月의保勢를 繼續한끄레 新甫六月限의 十四丁上鞘로 發會한 後도 한保勢를 持續할뿐이다 그런데 當地三十二圓臺와 阪地三十四圓臺는 價位로 보아서는 相當한 高價이므로 買方은 警戒를 加하는모양이고 賣方은 正米의 實勢가 容易히 低落을 不許하는만치 腰入的行動을 取하지 못하는모양인데 大體의 人氣는 어느程度까지의 下押을 待하야 買出動을 開始하려는 傾向이 多하므로 어느時期까지 保勢로 一進一退하지 안흘가한다 그러고 때마츰 花時期에 入하얏만치 例年과 如히

市場大感

株……昨今과 가티 市勢가 올너가리면 强軟을 勿論하고 變方이 氣迷되기쉬운 것은 勿論이나 ▲市勢의 多少變動으로 自己의 信念이 不絕히 動하게 되면 損損 ▲假令 押目買方針을 세우고 行動을 하다가 中間의 反動을 보고 心境의 變化로 實方針을 取하게되면 이것이 자부즈키의 始初 ▲다음 이 時代에 안저서는 採算이라는것을 無視할수업스니 雙方이 모두 採算을 忘却하고 飛付할 까닭은 都無 ▲먼저 經濟界의 動向을 살피고 다음 採算에 立脚하야 行動함이 安全安穩할듯

米……新甫六月限은 發會되엿다 此限의 外에는 이야말로 天災期의 前哨戰이엇다 ▲將次如何히 展開될가는 疑問이나 大體의 方針은 押目買가 定理인 모양이어 ▲議會의 解散으로 市勢에 何等의 刺戟된 이 엇스나 그러나 此等 無材料로 等閑視할수는 업을 것을 ▲來三十日總選擧를 前後하여 가 아니면 알지못할것이나 何如間 政治的材料를 眺望한것만 오 事實

議會의解散과 兩派觀測區區

昨三十一日 政府는 豫算案未了의 議會를 突然解散하엿다 問題이 엇든 膨大한 豫算其他 重要議案은 모두 全廢로 決定하엿스므로 市勢에는 別影響이 업섯다 新甫發會에는 모두 保勢를 維持하고잇스나 그러나 今後에 如何한 强弱材料가 從亦 是 保勢를 持續할터인지 强弱兩派는 非常히 注意를 喚起하면서 今月三十日總選擧의 結果가 또한 何如할 거신가?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中限	◇先限
賣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今日財界一日

◆米 (單位圓)
仁川期米先限 三一・七九 不變
大阪期米先限 三三・六六
京城一等米一石 三二・二〇 不變
京城正租(仁川)一等 一斤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고무FAQ [illegible]

◆株 (單位圓)
朝取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鐘新 [illegible]
◆商品
綿糸先限 [illegible]
綿花先限 [illegible]
人絹先限 [illegible]
砂糖先限 [illegible]

正米 不透明의鈍狀

京城閑散
定期不振과 地方의 强硬으로 市況은 依然 閑散中이다 ⊕三等三一、二〇 四等三〇、九〇 一等白米二二、五〇

仁川保合
期米不透明으로 人氣不振이며 賣物杜絕과 日本內地不買로 取引은 全혀停頓狀態로 繼續中이다 ⊕穀良三一、三〇 三〇、九〇 銀坊主三一、一〇 多摩錦三一、八〇 三一、五〇 一等白米四三、六五 ⊕二二、五五

釜山强調
期米不透明이나 當用並手腕의 所得薄으로 全般的으로 人氣는 强하야 月初인 것만큼 移出側의手富買도 加하야 市況은 依然 强調를 示하엿다 ⊕穀良三一、三〇、九五 四等三〇、六五 一等白米一三、一二、一

大邱堅强
淸算新甫의不勢를 보나 當用賣需買와 月初의 比較的堅强하엿다 ⊕穀良三一、三〇 四等三〇、五〇 一等白米一三、三五

群山反落
新甫가期待에어겨 人氣는月初이나마 買氣不振하고 乘하야季節的苦痛으로 大豐側의 實氣가 潛在하야 市勢는 十五錢反落을 告하엿다 ⊕銀坊主三二、一〇五 四等三〇、八五 一等白米一三、一六

木浦鈍狀
期米不冴로月初의 日本內地實行도 지금으로期待의情勢에잇서서 市況은鈍狀을示하고있다 ⊕銀坊主三二、一、四〇 四等三一、一〇 一等白米一三、一

金・銀 德 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電話本局② 3939 1572 京城府明治町 振替京城234 應酬賣販換引金代

金銀白金 京城明治町 杉山商會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一九六〇 五六二 三九六

仁川 福 期米 吉村取引店

京城 金 證券 仁川 益康

株式

◆朝取短期 (前場/後場 寄付・大引・高値・低値) 朝取新、同新、鐘新、大新、東新、日産、同新、朝石、拓新、日鐵、同新、帝人 — [illegible]

◆東京短期 東新、大新、鐘新、新鐘、日産 — [illegible]

◆朝取短期實買高 合計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 新大、鐘新、東新、日産、新東、日鐵、新淺、帝人、日立、日曹、調管 —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illegible]

◆短期主要株取組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當限・中限・先限 前場一節～十節、後場一節～五節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取組高 中三一・八〇〇 先 [illegible] 出來高 [illegible] 本期通計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神戸・下關・名古屋 [illegible]

金銀價

◆金買入價 ◆東京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京城絹布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海外經濟 (三十日)
[illegible]

銀行券 (三十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手形交換・金利 [illegible]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illegible]